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本社主催産業視察團을送함

重大한使命을다하라

一

本社主催 第二回産業視察團一行은 七日 滿洲를 向하야 出發하엿다。一行 二十人, 視察地는 北은 哈爾濱으로부터 西는 北平, 天津에 至하는 滿洲及北中全般에 亘하며, 旅程 一萬餘里, 日程 三週間으로 實로 容易치 안흔 長距離, 長期旅行이다。本社가 年年 恒例事業으로 産業視察團을 派遣하는것은 本報의 四大綱領中의 一인 産業發展을 實現하려는 意圖에서 나온것이려니와 特히 滿洲를 視察地로 擇한것은 滿洲가 가진 産業的 特殊事情이다。

二

滿洲는 누구나 아는바와가티 扶餘族의 發祥地인 同時에 高句麗, 渤海等 우리 祖先의 活躍舞臺이엇고 李朝末葉에 이르러는 經濟的 不遇者의 避難地로서 朝鮮人과 잇지 못할 關係를 가젓다。特히 滿洲事變以後는 累萬의 移民이 年年 移送되는形便이오, 鴨綠江, 豆滿江을 挾한 朝滿兩地는 交通上, 産業上, 刻刻 緊密性을 加해간다。그러므로 滿洲의 外面이라도 一次 視察하는것은 朝鮮人의 常識이 이것을 要求한다。

三

勿論 滿洲는 新開地인만큼 發達한 商工業은 日本內地에 밀을바 못되나 日本內地의 商工業의 基盤으로서의 滿洲産業은 觀察할 價値가 잇다。卽 日本商工業의 原料가 되는 撫順炭鑛 鞍山製鐵所를 비롯하야 滿鐵幹線沿邊의 穀物集散狀況, 現代纖維工業의 重要原料가 되는製材及 팔푸工業, 一望無際한 大規模의 農耕産業等은 原料供給地인 朝鮮産業의 그것과 對照하야 興味잇는바 아닐가。特히 蘇聯中國과 隣接한 滿洲及北中이 貿易上에 가진바 重要性을 觀察認識한다는것은 우리 産業經濟家의 배울바일것이다。

四

廣漠한 滿洲의 全幅을 一二十日 觀察하는것은 二、三週間에는 할바 못되다。特히 鐵道能히 道路가 開通되지 안코 治安維持조차 안된 奧地에 對해서는 말할것도 업다。그러나 今番視察旅行地인 十四個所는 滿洲及 北中의 樞要地요 滿洲國이 建設途上에 잇서서 가장 힘을 集注하는 곳인만큼 滿洲의 産業的地位의 大綱을 엿볼수잇슬 것이다。

바라건대 滿洲視察을 外面的沿線風景의 觀察에 그치지 말고 滿洲가 가진, 産業上, 貿易上, 交通上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그 經濟建設이 那邊으로 向하는가를 究明하며 아울러 우리 先民이 끼친 産業的 文化的 발자최를 探求해 올것이다。物件은 視角에 딸아 差異가 잇다。先入見을 버리고 滿洲의 實狀을 赤裸裸히 觀察하야 우리 産業發展에 寄與하는바 잇다면 어찌 團員諸氏만의 所得이랴。

團程萬餘里에 日程을 順調로 맛치하야 多大한 收穫을가지고 도라오기를 빌뿐이다。

形式的發表를避코 革新諸政策實行

從來型을깨트려政策羅列發表안키로決定

新內閣의指導精神

【東京電話同盟】近衛內閣의 政綱政策은 七日閣議에서 決定될터인데 近衛首相은 新內閣의 指導精神은 이미지난四日에 聲明과라디오放送으로 闡明되엿슴으로 從來의 內閣과如히 政綱政策의項目을羅列的으로 列擧하는것은 자미업다는 見解를 갓고 閣議劈頭近衛首相으로부터 政綱政策에對하야 形式的發表를 避하고 專혀革新諸政策의實行에 努力하야 擧國一致에 當하기로하엿다는 旨를 述하야 各閣僚의 諒解를求한바 各閣僚도 이에贊意를 表하엿슴으로 新內閣은從來의 型을 깨트려 政綱政策聲明의發表는 行치안키로 決定하게되엿다 그리고近衛內閣의 施政의 根本的指導精神을 要約하면 左의四項目이다

一、我崇嚴한 國體에 對한觀念 卽 日本精神發揚顯現을 期할것

一、國內의 相剋對立을緩和하고 擧國一致의 實을擧하기爲하야 指導原理를 確立함

一、現狀維持의 平和가아니라 國際正義에 基한 眞正한 平和를確立함

一、社會正義에 基한 諸般施設을 實行하야 庶政의 革新을 行함

國際正義에立脚한 平和政策을宣明

廣田外相、各國大公使와接見코

【東京電話同盟】廣田外相은 七日午後二時부터 外務省大臣室에 招致한駐日白耳義大使바쏘-피엘氏以下 駐日各國大公使와 接見하고 外相就任人事를 述한同時에 近衛內閣의 外交方針大綱을述하고 國際正義에 立脚할不動의平和政策을 宣明하엿다

聖上陛下 稻作御親栽

【東京電話同盟】聖上陛下께압서는 農事御獎勵의 御思召로 宮城內에 六十坪의 稻作을 御親栽하압시사 親히 農事를 御體驗하압시는데 今年도 同樣의 御思召로써 七日午後二時五分 御野裝으로 服部御用掛, 百武侍從長以下 側近者를 거느리시사 吹上御苑內의 水田에 내리오서서 約三十分間 早苗를 御植付하압시고 同二時四十分 入御하압시엿다

蘭印側代表 聲明書를發表

【神戶電話同盟】來十一日부터 大阪에서 開催될日蘭民間會商의 蘭印側代表團長 蘭印政府顧問스르라-텐氏夫妻, 蘭印輸入業者組合長 하이센博士, 同秘書부쩨라氏等代表一行八名은 七日午前九時 神戶入港의 郵船秩父丸으로 上海經由來朝, 石澤바타비아總領事를 비롯하야 阪神地方關係當局者等의 歡迎裡에 東亞호텔에들어갓는데 記者團의 質問에 對하야 一切回答을 避하는等 愼重한態度로써 스르라-텐氏로부터 左와如히 聲明書를 發表하엿다

余는 過去數年間 바타비아港의 外交部商務局長으로서 日本의 經濟問題에對하야 密接한 關係를가지고잇는者이다 그리고 同行의 부쩨라氏는 今回會商의 余의協助者이오 하이센氏는在日本蘭印輸出商으로 成立된蘭印輸入業者의 組合長이다 我等은 單純히 蘭印輸出商의 立場에서서 日本當業者와 友誼的으로 討議하고저 來朝한 것인데 日蘭通商關係의 他問題가 이미 할르트石澤會商에依하야 滿足한結果를어더슴으로 何等 새삼스러이 討議할것은업다 我等은 먼저 東上하야 和蘭公使及 廣田外相을 訪問할 터인데 今回會商이 過去의兩國間에 存在하엿고 또 我等이 바타비아會商에잇서 直接으로 痛感한 友誼親善의 精神에依하야 圓滿한 解決에到達할것을 期待한다

그리고 一行은 兩三日 東亞호텔에 滯在 八日午後四時부터 大阪日蘭會商委員會의 日本側委員과 事務的協議를 하고 會商의〃레셉숀〃에 臨한後 東上할豫定이다

商取引圓滑化로 抗日運動은絕滅은不能

統一、經濟建設抗日은中國國策의基調

三浦漢口總領事歸國談

【神戶電話同盟】十八年間中國에 駐在한 漢口總領事 三浦義秋氏는 家族同伴하야 七日午前九時 神戶入港의 秩父丸으로 歸國하엿는데 同船中에서 말하되

我國에잇서서는 中國再認識論이 盛히 提唱되는데 從來統一運動과 經濟建設의 二點에 對하야 注意하고 抗日運動에 對하야는 이를等却한 傾向이잇스나 最近 抗日運動은 顯著히 消極的排日에 기우러진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抗日運動의 軟化라고 觀測하는者잇스나 가抗日과 統一과는 中國에 잇서서는 表裏가되는것이니 商取引이업서진다고는 말할수업다 日本의 勢力을 排除하려는者는 中國의 國策의 基調이요 絶對不可分의 關係에잇다 日本의 一部에서는 商取引의 圓滑化를 期待하는 中中央復歸라는것도 이를테면 冀察政權의 中央復歸라는것도 이미 一般的常識으로되여잇는 程度이다 日本에서는 從來 너무政策的精神으로 이를 等閑하엿던 것으로 이를 바칠決心이다

政綱政策의發表를 財界方面서待望

賀屋、吉野콤비에若干明朗性回復햇스나 馬場內相就任으로若干警戒

【東京電話同盟】財界에서는 近衛內閣의 政綱政策發表를 期待하고잇섯는데 期待하엿든 七日은 未發表가 되엿스므로 一般의 期待에어그러진 感이깁다 新內閣은 일즉이 國內의相剋摩擦을避하고 國際正義에 則하야 平和의 確立을爲始하야 財政經濟政策의 根本方針을 宣明하엿는데 問題는 要컨대 此等諸問題의 解決具體案은 今回의 聲明에依하야 비로소 그內容을 明白히 할수잇다고하는바 이오 特히 馬場內相의 就任으로 重大한 衝擊을 受한 財界에서도 賀屋藏相및 吉野商相의 콤비로 新內閣에對한 氣分은 明朗性을 다시回復하엿스나 아직 警戒氣分을 느치울수업는 狀態에잇스므로 此際速히 政綱政策發表를 待望하고잇다

政務官設置問題 今週中에決定乎

【東京電話同盟】新內閣이 各省政務官을設置할지 그與否는 新內閣의 政黨工作에對하야 特히 注目되는데 目下로서는 아직 二閣僚中對議會關係를 考慮하야 各省에一名式政務官을 設置하는것이便宜하다는 意見이擡頭하고잇는 程度이다 그리고 政府首腦部의 意向으로서는 먼저今週中에 政務官을設置할지 그與否를決定한 然後에對政黨工作에對하야 考究하려는 模樣이다

東久邇宮殿下 飛行機로御退壤

【平壤】御入壤中의 東久邇宮殿下께서는 五日午前八時·沿道에 羅列한 在壤官公署員, 府內各專門學校 男女中初等學校生徒의 奉送裡에 平壤飛行場御發 飛行機로 御退壤하시엿다

우크라이나黨大會 中央의處置論難

黨政治工作의全面的改革要求

【莫斯科六日發同盟】第十二回우크라이나共産黨大會는 六日莫斯科에서 開催하엿는데 右大會에서 依然中央執行委員會의 政治的目이 論難되어 黨政治工作의 全面的改革을 要求하는決議가 採擇되엿다 決議要旨는 左와如하다

一、中央執行委員會는 政治的、組織的敵인 反革命分子、國家主義者、日、獨波三國의 간첩들이가 責任의地位에 就하는等을 默認하엿다 이實情에鑑하야 共産黨의政治工作을 全的으로 修正할必要가 잇스므로 黨의新組織에잇서서는 全聯邦內의國家主義的表現에 對하야 容赦업는 鬪爭을 開始하지아니하면안된다

石炭液化事業爲한 海軍滿鐵聯合協議

【德山電話同盟】海軍과滿鐵에依하야 研究를進行하고잇는 石炭液化事業은 只今은 試驗期를脫하야 本格的事業化를 圖키로되여 이에關한 海軍及滿鐵의聯合協議會를 七、八兩日 德山의 海軍燃料廠에서 開催하야 滿鐵에서 撫順炭坑의 長久保博士、海軍에서 吉成少將、野村(研究)別府(製油)兩部長、海軍省에서 細谷軍需局 第二課長等出席 第一日은 午前九時부터 廠內會議室에서 午後四時까지 協議를行하엿다

第二日의 八日은 株主總會에 出席키爲하야 上京中의 松岡滿鐵總裁도 出席하는데 協議結果는 자못重視되여잇다

第一日會議終了後 海軍燃料廠副官室談의 形式으로 左와如히發表되엿다

今回會議는 石炭液化事業에關한 極히重大ㅎ 데리케트한 問題에對하야 協議가 進行되고잇스므로 會議의內容은 一切極秘에附하고잇다

企畫廳總裁 廣田外相으로決定

【東京電話同盟】企畫廳總裁는東部가 馬場內相을 推薦하엿는데 賀屋藏相, 吉野商相은 財界에의 刺戟을 두려워하야 反對하엿스므로 近衛首相은 兩者의 意見을 折衷하야 閣內에서 重要視되는 廣田外相을 起用하고 閣內의 融和를 圖하기로하엿다 이로써 近衛內閣의 態度는 外相의 承認을 어덧스므로 廣田外相의 承認을 어덧스므로 企畫廳總裁는 廣田外相이 兼任키로되여 近日中發令될터이다

外務大臣 廣田弘毅
企畫廳總裁被仰付 (兼任)

鐵相秘書官 瀧澤氏로決定

【東京電話同盟】鐵道大臣秘書官으로는 貴族院議員瀧澤正三郞氏를 任命키로되여 一兩日中發令될터이다

特別議會會期는 二週間以內로될듯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七日閣議에서 特別議會召集準備에對하야 여러가지協議를 行하엿는데 召集期及會期에 對하야는 各省提出案을 八日中에모아 九日閣議에提出하기로 되엿스므로 提出案의 取捨及準備의 形便을 考慮에너허서 決定할 方針인데 召集期는 七月下旬頃으로하고會期에對하야는 明年度豫算編成及 通常議會召集準備其他에 依하야 二週間以內로할터 適當하다는意見이 有力化하다

文部次官更迭

【東京電話同盟】河原文部次官의 勇退에伴한異動은 七日閣議에서 決定發表하엿다

思想局長 伊東延吉
任文部次官(一等)
文部書記官 河原春作
任文部省思想局長(二等)
文部次官 河原春作
依願免本官
文部次官 伊東延吉
文部書記官 堀池英一
任文部省專門學務局長專務取扱을命
普通學務局長專務取扱을免하고大臣官房文書課長을命함

近衛首相十二日西下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 來十二日午後 東京驛發列車로 西下하야 伊勢神宮에參拜 新任奉告를行하고 다시畝傍御陵, 桃山御陵, 熱田神宮에參拜하야 新任奉告를行한後 歸東하기로되엿다

兩相、首相과會見 政綱政策協議

【東京電話同盟】馬場內相 賀屋...

各道警察署長會議

全朝鮮各道의 警察署長會議에 橋警務局長以下 各課長事務官等이 各各臨席하야 第一線警察官을 激勵할터인데 決定된各道警察署長會議는 左와如하다

▲咸南北十四日·十五日 ▲咸北十一日·十二日 ▲全北十七日·十八日 ▲慶南二十一日·二十二日 ▲平南二十一日·二十二日 ▲黃海二十八日·二十九日 ▲平北七月一日·二日 ▲忠北今月下旬

羲相은七日午前九時四十分서로前後하야 首相官邸에 들어가 近衛首相과 會見하고 同日閣議에서決定할新內閣의 政綱政策에對하야 여러가지 協議를行하엿다

人事·集會

▲相川外事課長 渡東中病으로靜養中이든바病도回復되엿스므로 明八日午後一後二十五分京城驛發으로 歸任하게되엿다
▲林正熾氏(東亞日報 營業局長) 新任人事次 七日來社
▲裵源模氏(前同社 專務兼 營業局長)辭任人事次 同上
▲李鍾萬氏(大同鑛業株式會社社長)新任人事次來社
▲李晟煥氏(同總務課長)同上
▲張儀氏(中央基督靑年會體育部幹事)中學町六八番地에서 遭內艱

夕刊後市況 七日

當限八〇八〇〇 先限八一〇〇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八二一〇 先限 八二〇〇 ◆福井 人絹 後引◆

新內閣閣僚의面貌 (五)

鐵相 中島氏

氏는 永井氏와 함께 近衛內閣에잇서 단두사람의 黨出身大臣이오 또 林內閣에의 入閣을 둘러서 活躍한 政民兩黨의 花形黨員들이다 뿐만아니라 昨年末로부터 今年初에 걸처 兩氏는 함께 新黨組織을 획하엿고 또 서로뭇지지아니하는 雄辯家들이다 그러나 두사람의 性格은 正히 對蹠的이다 中島氏는 똥똥한 表情에 나타내지 아니하는 處世術, 豪放…한 몸에 좀처럼 지라도 할만한 學歷도 가젓지만 中島氏는 말하자면 群馬縣에서 出生한 一個農夫의 아들이다 뿐만아니라 永井氏는 世上에 말하자면 政治家의 사람이다 過去四十餘年間 숨맛단 맛을 다맛본 말하자면 기시넝쿨을 뚤코 거러온 强鐵의 人物이다 그에게 表情이 업는것은 이와가튼 環境의 所致이려와 氏는 明治十七年(當五十四歲)群馬縣에서 나서 글字그대로 苦學力行으로 海軍機關學校를 卒業하고 機關將校로서 飛行機製作의 發展에 아울러 大尉에까지 昇進하엿다 大正六年 當時 航空界의 發展과 아울러 民間航空機製作이 急務인것을 깨달은 氏는 職을辭하고 곳 中島飛行機工場을 開設하야 이를 발전시켜 오늘의 中島飛行機工場을 이르키어 氏는인제 日本航空機工業의 王座를 占領하게되엿다 이러케 實業家로서 成功한 氏는 다시 政界에 參與하기始作하야 昭和五年에 비르소 立候補하야 그로부터 當選이 繼續되엿다 一方 實業家로서 商工政務次官을 지낸다 그後 의 政友會內에서의 地盤은 漸漸 굿세지고 久原氏가 黨落한後 兵政會의 重鎭으로 最近에는 總代行委員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最近에와서는 黨의 政友에 門戶를 開放하기는 실혀하는 飛行機工場은 그아우와 一家에 맷겨버리고 國政研究會를 創設하야 政治를 研究하든 이이번에 鐵相의 椅子가 굴러온것이다 그가 新黨建設의 夢을 꿈꾸는 人物인것을 생각하면 近衛內閣에서의 役割도 아울러 짐작할수잇는일이다

海相 米內氏

이야기는 조금 前으로 돌아가거니와 今年봄 林氏에게 大命이 降下되얏을때 海軍側에서는 入閣하지 아니하얏다 그래서 그랫는지 林氏가 마다고 해서 그랫는지는 알수업스나 어떠튼 그는 入閣하지 아니하얏다 그래서 그後 海相에는 中將級에서 나오든 것을 보고 米內를 보내자고하야 米內가 結局 海相을 차지하고 보니 世上에서는 大臣으로는 좀 不足한듯이 말하엿다 이런話題의 渦中에 잇는지 업는지 林內閣은 局으로 이미 退却하얏다 그래서 米內氏는 무릇 新進을 扶擁할때에는 언제나 인는것으로서 問題는 다만 自己의職責을 充分히다하고 못하는데 잇슬것이다 林內閣은 이미 退却하얏다 그래서 米內氏는 多少 알여지기는 햇스나 勿論 試驗濟의 人物이아니였든 이다 그의 政治的活動은 오히려 지금부터이다 이點에서 그에게 信을 두는 사람은 亦是그의 政治的將來에도 期待를가지고 잇다

氏는 謹厚한 사람으로서 寡黙이 至極하고 性格은 明朗한데다가 男性的이여서 〃예스〃와 〃노-〃가 明徹하다 一部에서는 그를 現政界의 淸流劑라고까지말하엿다 艦隊에서의그의人氣는末次를凌駕하야거이 艦隊的이라고한다 그외官役을 살펴보면 盛岡縣에서 出生하야 明治三十四年 兵學校를 卒業하고 日露戰役에는 水雷艇乘組員으로 出征하얏스며 그後海軍大學을나와가지고 昭和五年에 中將이되엿다 그동안 日露戰役에서 功五級에 第二艦隊參謀長, 第一遣外艦隊司令官으로 오래동안 中海方面에서 勤務하다가 鎭海要港部司令官, 第三艦隊司令長官 佐世保鎭守府司令長官, 第二艦隊司令長官 昭和十年에 横須賀鎭守府司令長官을거처 聯合艦隊長官이되지 얼마아니되여 非常時日本의 海相으로 林內閣에 入閣 이번은 두번재 海軍大臣으로 前議會에서 政界의 淸新을 爲하야 解散을 强硬히 主張한그 手腕이 세아르로더욱 發揮될것이니 淸涼大臣의 雅號나 하나지어둘까

中金後任理事長 石黑忠篤氏決定

【東京電話同盟】有馬伯의 農相就任에 伴한 産業組合中央金庫理事長의 後任에 對하야 有馬農相은 元農林次官石黑忠篤氏를 推薦하기로決定하고 同氏에 交涉中이든바 石黑氏는 七日就任의 旨를 回答하여왓다 따러서 一兩日中에 正式으로 決定發表될것이다

楊虎城氏十九日外遊

【上海七日發同盟】西安事件의 中心人物楊虎城氏는 健康其他를理由로하야 出發을延期하엿든데 마침내 來十九日發 후-버號로 日本經由外遊의 途上에 오르게되엿다 資格은 軍事上作委員으로서 約一年의 豫定으로 米國經由歐洲諸國을 巡視하야 蘇聯에도 入國할지도 모른다한다

滿洲國謝大使歸國談

【神戶電話同盟】駐日滿洲國大使로서 約二年間 活躍하다가 近近 辭任하기로 決定한 謝介石大使는 鼓務官外一名을 帶同하고 同七日正午神戶出帆의 吉林丸으로 歸國途上에 올랏는데 大使는 同船中에서 말하되

現職을 辭任하면 一個月쯤再次渡日하야 自由人의 立場으로부터 根本的으로 地方의 行政組織을 研究하야 滿洲國의 行政改革의 基本에 資하려고 생각한다 勿論官을 나 바에이더라도 日滿一體의 精神은 余의 一貫한 主張임으로 이를 爲하여서는 一生을 바칠決心이다

중앙의 近衛首相以下各閣僚의 日本國策을 基礎로하야 今後大局的見地로부터 徐徐히 不動의 對中政策을 樹立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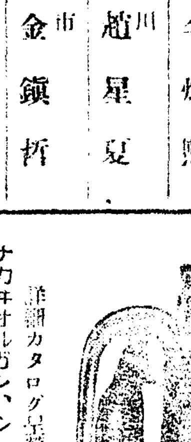
祝 朝鮮日報鴻山支局設置五週年
鴻山邑 株式會社 有恒社
印刷所主任 崔鍾燮
同 永信商會 主任 鄭勝
同 平和商店 主任 朴鍾涍
同 義信商店 主任 李義商
同 相信自轉車店 主任 趙俊相
同 壽昌堂藥房 主任 尹炳
同 鴻一商店 主任 姜相敎
同 百濟銀房 主任 崔鍾煥
中堅靑年 李鳳吉
同 回春堂藥房 主任 金敎濟
同 鴻山自轉車商會 主任 朴鍾洪
同 開城食堂
外山面 外山面職員一同
內山面 內山面職員一同
南面 南面職員一同
九龍面論特市 興日商會 主任 洪
外山面 天寶山鑛山
外山面 學校評議員 張基坊
玉山面 中堅靑年 尹永澤
南面 有志 李炳熙
舒川 有志 趙星夏
林川市 有志 金鎭哲
南面 有志 金敎一
恩山市 廣成木工場
鴻山邑 中央理髮館
鴻山邑 水利組合
鴻山邑 中興商會
鴻山邑 扶餘産業組合
鴻山邑 有志 安重錫
鴻山邑 有志 金東淑
鴻山邑 學務會
鴻山邑 鴻山面事務所
恩山市 恩山駐在所
林川 桑苗事務所
外山面 有志 李海東
舒川 印刷所 金容俊
南面 長金面 金永平
玉山面 面長 徐相彬
外山市 有志 蘇判永
南面 有志 廉面文
內山面 有志 李面
九龍面 九龍面職員一同
外山面 有志 李面興
鴻山邑 有志 高明中

讓受 朝報案內
惠化町七四의一九 一番又는勸農町三七 電話本一 八四六 九四一番地로
貴 御 タイハツ中古運搬用 オートバイ一臺譲受 希望者는電光二五八로問議하시오

型〇七第五十
踏足十斗抽個三用庭家
付品屬附
(定價108円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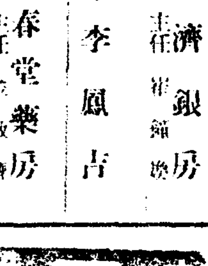
國產家庭用 優秀ミシン
關西ミシン
關西ミシン製作所
本店營業部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販賣部 大阪市東區淸水谷東之町 六九
廣島總代理店 廣島市研屋町一二番 平野ミシン商會
岐阜總代理店 岐阜市美殿町 荒川ミシン商會
日本デ出來ル舶來品ミシン是非御家庭用ニ壹台ヲ
カタログ送呈
(全國特約店募集 ミシン店ニ限ル)

大阪國旗國旗店
國旗會旗 優勝旗
日本毛織旗布 バンテン 手販賣
大阪瓦町 田中旗店
カタログ送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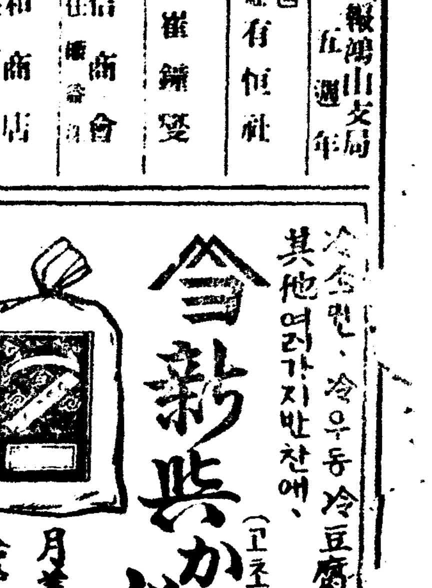

軍隊ラッパ
九〇式三重巻ラッパ
官公署學校青年團에愛用되는
第一金賞을탄軍樂器 日本의八個所에서
ナカヰオルガン、シレネギター、ハーモニカ製造卸
詳細カタログ呈 營業者ニ限ル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喇叭製造所
電話五一二三番

人絹綿布端切各種卸
大阪市南區東詰大阪南局第三三號函
國津村合資會社
電話南一四八九番 振替大阪一二八三番

手藝材料問屋
刺繡 手芸 毛糸 ステッチ 人絹 パンジー
製造卸 藤崎商店
大阪市南區松屋町三九
電話東二〇九五七番 振替大阪八〇三八番


蓄音器、蓄針、附屬品
大勉强卸問屋
大阪市西區新町南通四丁目六
日本オリムピア蓄音器商會
電話三二九四番

家庭用諸金物卸
アルミニューム 銅眞鍮亞鉛琺瑯 日用家庭諸金物
大阪銅器合資會社
大阪市東區南本町四丁目
電話船場(三四)二七番 振替口座大阪五四八番


冷麵、冷우동、冷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
新兵からし (고초가루)
月美人印からし製造本舖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天滿

朝鮮第一 少年雜誌
少年六月號大好評
探偵小說 新連載
幼稚園 童話特輯
小說童話 大滿載
各界名士 總執筆
팔뚝時計 大懸賞
猛獸잡기 大畫報
一冊定價 단十錢
冊注文은 시방곳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六番)

東郊所産의菜蔬에 安全消毒의檢印!

東署에서管內行商에게"檢印手帖制"를實施

傳染病豫防의鐵壁陣

마음노코먹을 서울의菜蔬

상치쌈을 안심하고 먹을수잇게 되엿다 경성부에서는 금년부터전염병예방의 한가지방책으로 왕십리(往十里)와 뚝섬 두곳에채소소독장(菜蔬消毒場)을 설치하고부내로 드러오는채소는 반드시거기서『크롤칼키』라는 소독약으로소독을하게하는데요지음은두곳에서하로에평균사백명식거치게되다한다 그러고 매일채소를 팔러다니는 행상인들에게동대문경찰서(東大門署)의 인장을찍은 수첩(手帖)을 한권식주어서거기서 소독을한뒤에는 소독장사무원이 일일히 소독년월일과수량(數量)을 적어서 주는터이므로 그수첩을가지지안코 채소를파는사람은 결국 소독하지안흔채소를 파는것으로 볼수밧게업서서경관에게 들키기만하면 엄중히벌하기로되엿다 채소를 사먹는일반부민들은 채소를 살때에 반드시 소독을거친 그수첩을조사해본뒤에 사먹는것이 안전하리라한다 두곳의 채소소독장에는 인부네명과 소독인(消毒人)두명식으로 여섯명이 전임하야일을보고잇스며 소독은 전기동력(電氣動力)으로『탕크』에 너어서씻고 또 다시 씻는곳은뚝섬에 여섯개와 왕십리에세개라한다 또 일방으로 청계천(淸溪川)의 더러운 물에서 채소를씻는 사람을 취체하기 위하야경성부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둔 청원순사(請願巡査)두명은 왕십리주재소에 주재하면서 이십사시간식 번갈러가면서 청계천연안을순찰하고잇는데 약사리가량되는거리를 반낫으로 세번식순회하고잇서서 여태까지는 위반자가한명도 걸린일이 업다한다 그래서 금년에는 채소로 말미암아전염병에 걸릴우려는 업게되세음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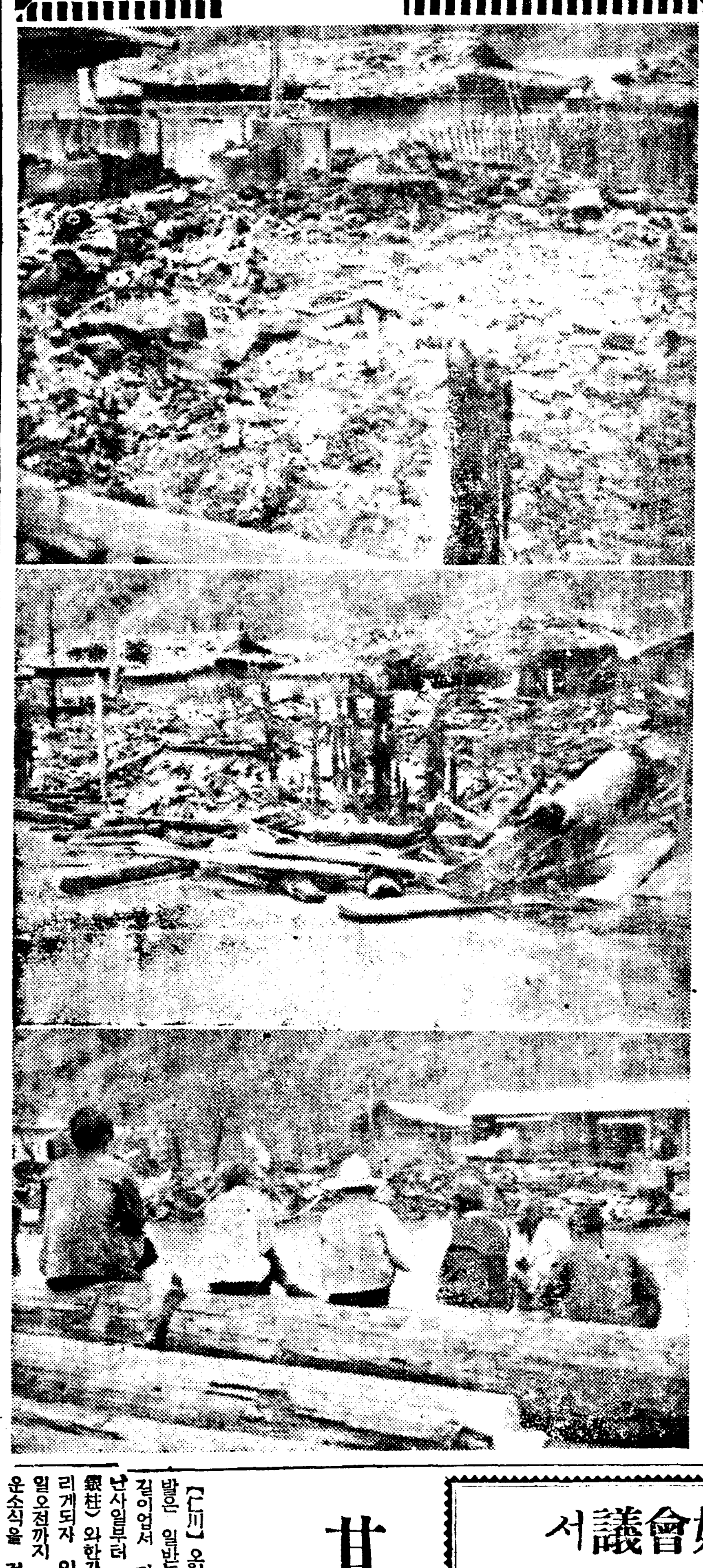
巡査部長溺死

昨日魔의漢江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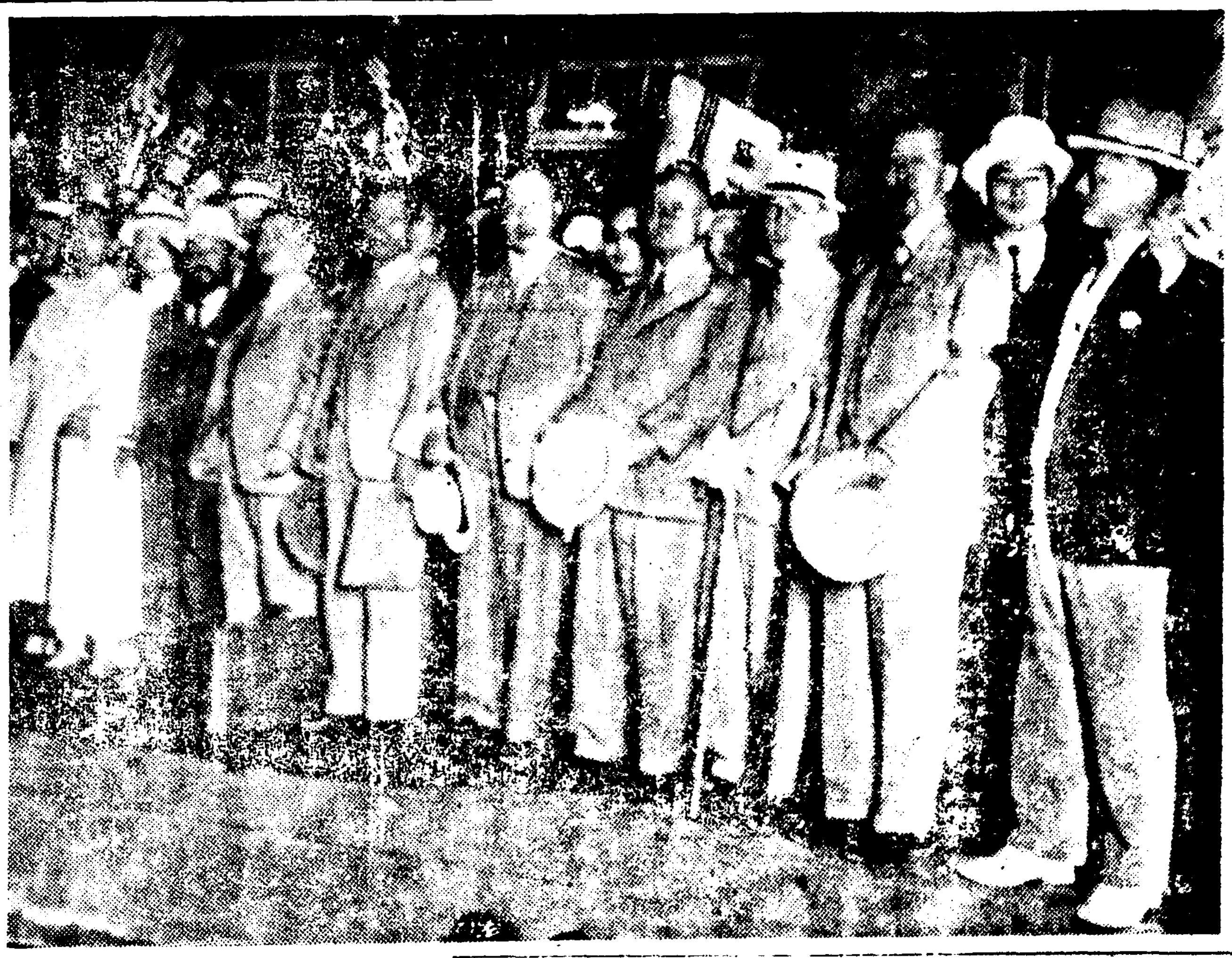
엿샛날 일요일에는 네개의시체가떠올라 한강은마치수마(水魔)의 조량처인 무시무시한 인상을주고잇는때 이번에는 현직경관의 익사사건이 발생하엿다 엿샛날 오후다섯시이십분 부내 룡산서 한남주재소(漢南駐在所) 수석 황의열(黃義悅)(三?)순사부장이 다른사람셋과『모ー타뽀ー트』를타고 서빙고(西氷庫)로향하든도중에 까솔린이 다 업서젓슴으로 연안에 대일라고할때『푸로페라』가 암초에 걸린것을 떼여내려고 물에들어갓다가 배와함께 기픈곳으로 흘러들어가 무참히죽고만것인데 이급보를바든룡산서원과 부근주민들의 필사적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체는 동일밤열시까지발견치못하엿다 황부장은 부내공덕정태생으로 소화오년봄 부내제이고보를마치고 이듬해칠월에순사가되여 본정서에 근무하다가 작년칠월부장으로 승진하야 동시월 전가주재소 수석이되엿사람으로 가정에는부모와이남일녀가잇다

普天堡事件畫報

【本社惠山鎭支局撮影】



上으로부터 燒却된 面事務所·普通學校·郵便所



運動競技

世界一의"마라손·코ー스" 東京올림픽까지完成?

日本土木界의權威들로 組織된 올림픽東京大會 土木施設調査委員會에서는 世界에자랑할『마라손·코ー스』를 選定코저 調査中이든바 지난廿六日의 委員會에서 內務省이 總工費一千三百萬圓으로 昨年부터 六年間 繼續事業으로 工事中인 新京濱國道(品川區西大崎一丁目으로부터 橫濱市神奈川區西神奈川二丁目에이르는 一八、三九二米)의 工事를 豫定보다 닥어서 昭和十五年六月頃까지 完成하면 同道路는線路와의平面交叉와 『커ー브』地點에 잇서서는 急激한昇降이업슴으로 마라손·코ー스로는 가장適當하다고選定하야 日本陸上競技聯盟이 이것을認定하면 곳組織委員會에提出하는同時에 大會에잇도록 內務、大藏兩省에 工事期間의短縮을要求하야 新京濱國道는 東京올림픽大會의『마라손·레ー스』는 華麗하게擧行할터이라하며 마라손이終了하기까지는 選手의練習以外에는 步道또는車道로 通行을禁하야 伯林大會코ー스보담도優秀한 理想的世界一의『마라손·코ー스』를 만드를터이라한다

新人卓球戰績

鷄林卓球俱樂部主催의 第四回新人卓球大會와 스파르타運動具店主催의 第二回硬式卓球大會는 六日午前九時半부터 來靑閣에서 擧行되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軟式에는 張興基君(雅俱)과 硬式에는 金相華君(專賣局)이 各各 優勝하엿다

◇軟式部 (準決勝)

張興基(雅俱)三―一李相堯(專賣)

閔忠植(高農)三―〇金谷(本府)

◇決勝戰

張興基(雅俱)三―一閔忠植(高農)

◇硬式部(準決勝)

▲파인푸레이賞=魏基鴻(一高)

閔忠植(高農)2…0劉泰榮(一高)

金相華(專賣)2…0張興基(雅俱)

◇決勝戰

金相華(專賣)2…0閔忠植(高農)

早大가連勝 早慶野球二回戰

【東京電話同盟】東京大學野球리ー그의終幕을 裝飾한 早慶野球第二回戰은 七日午後一時부터神宮球場에서 角田(球)、瀨口、松井(壘)四氏의審判아래 早大先攻으로開始되엿는데 結局六對四로早大가連勝하엿다(閉戰四時二十七分)

早大 0 0 0 4 0 1 0 0 1 …6

慶應 0 0 0 0 0 0 0 0 4 …4

◇投捕=(早大)若原…小守(慶應)中田、高木、高塚…櫻井

中等籠球리ー그

籠協朝鮮支部主催의 京城中等校春季리ー그戰의 六日各校戰績은 다음과갓다

東星	36	22―10 14―8	18	仁商
一高	24	10―6 14―6	12	二高
東星	38	22―10 16―18	28	道商
養正	41	24―10 17―13	23	一高
大東	28	11―4 17―2	6	仁商

職業拳鬪

全日本職業拳鬪라이트級選手權保持者 金恩燮(光山)對 松本義城의八回戰을메인에벤트로한 職業拳鬪戰은 東光拳俱主催로 來十九日午後四時부터 京城

世界拳鬪覇者에 罰金二千圓

運動場行政에서行政處分이라한다

【紐育六日發】 紐育州體育委員會에서는 二日世界拳鬪選手權者『죠ー·루이스』와『뿌라독』의 兩者에게 各各一千弗(日貨約三千四百圓)의 罰金을 命하고 今後紐育州內에서는 一切 拳鬪試合에 出場을 禁止한다는 뜻을 言渡하엿다 이 處分의理由는 表面上 契約不履行에關한 法律問題인데 事件의起因은 世界選手權者『뿌라독』이 昨年六月에 『슈메링』이『죠ー·루이』를 擊退한後 世界選手權者『뿌라독』에게 敢然挑戰하야 『뿌라독』對『슈메링』의 世界選手權爭奪戰은 六月三日 紐育에서 擧行하기로 契約이 成立되엿섯다 그러나 其後米國側에서는 『뿌라독』의 實力에잇서서 自信이업서 世界選手權은 바다를 건너서 獨逸로갈것을 念慮하는 한편 여기에 猶太系米國人의 對獨逸人感情도 包含되엿슬뿐아니라 興行師들의 複雜多端한 商折衝이 잇섯슴으로 뿌라독選手는 六月三日의對슈메링戰을取消하고 따로 六月二十三日市俄古에서 『루이스』와對戰하는데 契約을 締結하엿다 『슈메링』側은勿論 最初의契約履行을 어데까지 要求하야 이것을法律問題로서 『뿌라독』과『루이스』를 紐育州體育委員會에 提訴하엿든바 지난三日에『뿌라독』의 不出場이 決定되여 이것을根據로 以上과가튼判決이 내린것이다

本社主催 滿洲産業視察團

一行卅二名昨夜京城驛發程

신흥만주국의 각도시와 및농촌을 낫나티 시찰할 본사주최제삼회 산업시찰단 삼십이명은전조선상공계의 열렬적화영과지지속에 영업국장 김광수(金光洙)씨와 정치부장 한보용(韓寶容)씨 동반하에 드되여예정대로 칠일오후일곱시 사십오분봉천행렬차로경성역을출발하엿다 역전에는단원들의가족 친지와 본사사장 방응모(方應模)씨이하사원다수등 약 이백여명이 전송을나와 본사기빨이날리는속에 방본사사장선창으로 조선일보사 주최산업시찰단 만세를 삼창하야 성대히그들의 전도를 축복하엿다 일행은 일로봉천으로가서 대련 려순 천진 북경등 예정도시를 전부시찰한후 오는이십륙일경성에돌아올예정이다(사진은봉천행렬차에서시찰단일행)

搜査願三件

칠일오전에룡산서에 드러온 수색원세건—

▲부내 신공덕정(新孔德町)일백사십륙번지에사는 철도국공무과 리긔공(李基競)의집에서 고용녀로 잇는 정금순(鄭今順)은 칠일아츰에 집을 나갓는데 드러오지 안는다고 차저달라고 ▲부내 룡강정(龍江町)일백칠십사번지에사는 허명운(許明運)의처 김덕성(金德成)은 지난륙일 오후한시쯤 집을나갓는데 인천방면으로 도망한모양이라고 차저달라는것이고 ▲부내 원정(元町)삼정목일백이십삼번지에사는 매약상 고영식(高永植)의 이녀 고희옥(高羲玉)은 륙일오전 열한시쯤 어데인지 나가서 드러오지안는다고 차저달라는것이다

朱耀翰氏歸宅

칠일아침 부내종로서고등계에서 취조중이든 리광수(李光洙)주요한(朱耀翰)씨외지명인사 여섯명중 주요한씨만은 동일오후일곱시경집에도라갓스나 그외제씨는 동서에 계속류치중이다

스토ー브窃盜

본적과주소를알수업는병어리 김심만(金心萬)이는 칠일새벽 본정(本町)일정목과자상 대화헌(大和軒)에서『스토ー브』(時價十八圓)한개를 훔처서 명치정(明治町)방면으로 지고가다가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다한다

勞資協調

鑛夫에게도利益配當

李鍾萬所有八百餘鑛區中心으로 『大同鑛業株式會社』가出現

농촌구제사업에 오십만원을 희사! 자기광산 종업원에게 위로금으로 십만원! 교육사업에 만여원등!

련속적으로 사회사업에 거액의 헌재를한 광업가 리종만(李鍾萬)씨의 소유 팔백여광구를 중심으로 로자협조의 자본금삼백만원의 큰광산회사가나타낫다 즉 륙일오전열시부터 시내종로삼정목 사십칠번지의일호 그창립사무소에서 리종만씨소유팔백광구를중심으로한 자본금삼백만원의 대동광업주식회사(大同鑛業株式會社)가 창립되엿고 이와동시에 이날정오부터 천향원별장(天香園別莊)에서 대동광산중앙조합(大同鑛山中央組合)과지방조합(地方組合)이 창립되고 그역원이 선정되엿다 그조직내용은선기리종만씨 소유의광구에서 종업하는사람으로서 지방조합을 조직하고 이지방조합우에 중앙조합이 설립되는것으로 이조합의자본금은 대동광업주식회사의 조달금으로서충당하게되는데 이 대동광산에 종사하야 조합원이 되는 광부는 평소임금은 임금대로 받고도 륙개월이상 근속한조합원에게는 각각근로성적에 의하야 고권(股券)을 주어가지고 결산기(決算期)에가서 모든비용을 제하고남은 순리익금은 자영광창정적립금(自營鑛創定積立金)으로 십분의이, 광업권자배당금(鑛業權者配當金)으로 십분의사 고주(股主)배당금으로 역시십분의사를 주는것이다 그러고보니 결국 조합원 광부는 회사의자금으로 회사의광산을 발굴하야 평소임금은 임금대로받고 리익의 반분을 광부가 차지할수잇다 이와가튼 로자협조의 광업회사는 조선에는 물론 처음되는일이고 세계에서도 드문일로서 바야흐로 광산경기가 노픈오늘날 조선광업계에 일대『센세이순』을 이르키는 일이다 리종만씨 소유의 광구는 장진(長津)사백구 초산(楚山)이백구 자성(慈城)칠십칠구 태천(泰川)십삼구 강계(江界)사십구 의성(義城)십일구 정평(定平)영흥(永興)십사구 단천(端川)륙구 갑산(甲山)삼구 무산(茂山)이십구 회녕(會寧)십구 울산(蔚山)삼구합팔백구로서 이번그회사 조합의 역원으로 선정된사람은 아래와갓다한다

▲大同鑛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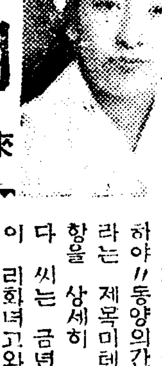
取締役 李鍾萬(社長) 同 李駿烈(專務) 同 李永兆(常務兼長津鑛業所長) 同 鄭顯模(常務兼經理課長) 同 李晟煥(鑛務課長) 同 閔正基(鑛務課長) 監査役 許憲(常任) 同 李勳求

▲大同鑛山中央組合

理事長 李鍾萬 常務理事 李晟煥 理事 鄭顯模 同 李永兆 同 閔正基 同 李鍾(?) 常任監事 許憲 監事 李勳求

國際看護婦會議서 氣焰吐할朝鮮女性

朝鮮看護婦協會代表로 來七月初旬에英京에



얼마전에 『세브란스』병원간호원두명이 호주(濠洲)로 간호학을 전공하려간뒤를 이어 이번에는 리화녀전사감으로게신 리정애(李貞愛)선생이 국제간호부회의에 출석하야 조선간호부를위하야만장의 기염을 토하게되엿다 오는칠월십구일부터이십사일까지일주일동안 영경『런던』에서는제칠회 국제간호부회의가 열리여 전세계삼십오개국대표가모히여서각각 자기나라의간호방면의발전상태를보고 또는토의키로되엿는데 리정애선생은 조선간호부협회의 대표로이회의에 참석하야『동양의간호부의건강상태』라는 제목미테조선간호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되엿다 씨는 금년삼십오세로 일즉이 리화녀고와 리화녀전을 졸업하고 『호놀룰루』녀왕병원(女王病院)에서 사년간 간호학을 전공한후 소화칠년에 조선에 돌아와서 『세부란스』병원간호부장으로 사년간 근무하다가 금년사월에 리전사감으로취임한분으로 현재조선간호부협회부회장 제국간호부협회 조선지부리사를 겸하고잇는중인데 오는칠월초순에 시베리아를 경유하야 일로런던에 향하겟다고 한다 (사진은 리정애양)

헬렌케라聖女

七月十日來釜

삼중고의성녀(三重苦聖女)『헬렌켈라』녀사는 오는 칠월부산(釜山)상륙하야 십이일밤에 입경한다고 하얏스나 이것은이달 십일이아니라 오는칠월 십일에 부산에 상륙하야 대구(大邱)를거처서 십이일밤 열시삼십오분에입성할터이란 전보가 총독부에 드러왓다는것이다 여사는십삼、십사량일동안은 경성에체재하야 전후세번 강연을 할터인데첫번에는 부민관에서 사회사업관계자와 교육관계자에 한번할터이오 그다음에는 역시부민관에서 일반부민에게 한다음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남총독(南總督)이하청원일동에게하고 십오일평양(平壤)으로가서 하룬묵은다음 일로만주(滿洲)로 향하리라한다

甘雨는當分無望

低氣壓의오호츠코海로遁走

曇天만은三日더繼續한다

【仁川】오월부터내리계속하는한발은 일반농촌에 옮기근을면할길이업서 마음만조리게하든바지난사일부터 오르든 수은주(水銀柱)와한가지 전조선적으로호리게되자 인천관측소에서는 곳일오전까지 비가오리라는 깃거운소식을 전하야주드니 온다든비는 제주(濟州)에 십일미리 부산(釜山)울산(蔚山)목포(木浦)에 이미리의 소우를 내리엿주엇을뿐으로 그외지방은 가랑비만 오락카락하야 조이든마음을 더욱애태이엿을뿐이다 또다시관측소에 비소식을 못견대북조선으로부터 흑룡강(黑龍江)에빠치여잇든 저기압은『오호츠크』해로 자최를감초고 새로히 미미한칠백오십이『미리』의 저기압이제주도(濟州島)와 상해(上海)를 걸처잇기때문에 아직도날씨가흐리고 잇슬뿐아니라 이삼일더계속하며 가랑비만오락가락할뿐으로 비다운비는아즉바랄수업다고한다

軍手

◇專屬織製家募集◇

실장갑 軍手 手袋製造는需用量激增에伴하야더욱有望하며織製는都市農村과男女時間等을不關하고容易함으로專屬織製家募集中希望者案內書請求次第送呈原料供給製品引受는勿論工場에機械設置實驗함으로其優劣을目前理解되오니御來參觀하심을切望

京城府上往十里町七七四(光武劇場裏)

朝鮮手袋工業社

執務로疲勞한대

로이히 ロイヒ膏 プラスター

肩臂痛 로이마치스 十枚入 廿錢

腰痛 打撲傷 十七枚入 三十錢

神經痛 齒痛 卅枚入 五十錢

運動後의筋肉疲勞 德用七十枚入 一円

各地藥店에잇다

東京品川 株式會社 歌橋製藥所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業務大擴張에對하야幹部社員招聘

(北鮮 西鮮 全南 慶南 主要地에出張所設置할)

有經驗者 無經驗者 相當敎養잇는者를歡迎

希望하시는분은本社에自筆履歷書를付送하시든지持參來談를乞함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

本社 東京丸ノ內有樂町 社長 金光庸夫

朝鮮支社 京城府花園町四五 支社長 河錫辰

(其他支社 出張所全國樞要地에有함)

◎日本敎育生命(姉妹會社)

敎育資金、結婚資金의有한保險도有利함

(詳細한것은保險案內에在함請求하시는대로送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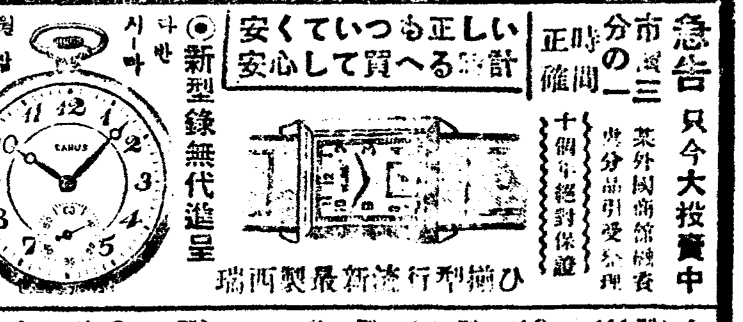
急告 只今大投賣中

市價의三分의一 正確時間

某外國商館倒産處分品引受

十個年絕對保證

安くていつも正しい時計 安心して買へる時計



瑞西製最新流行型揃ひ

◉新型錄無代進呈

◇註文하실대에는

(1)代金引換은 반드시內金으로三圓以上을拂込할것

(2)送金은…小爲替나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으로

(3)送料는代引注文者에限하야四十錢식負擔할것

(4)한번에六個以上註文時는五分割引、一打以上은一割引함但五圓以上의品에限

クローム側腕卷 腕皮付

(11型) イ 七石 只の二・八〇〇 ロ 七石 〃三・五〇〇 ハ 十五石 〃五・八〇〇

(10型) イ 七石 只の四・五〇〇 ロ 七石 〃六・五〇〇 ハ 十五石 〃七・八〇〇

(9型) イ 七石 只の五・八〇〇 ロ 七石 〃七・〇〇〇 ハ 七石 〃八・五〇〇 ニ 十五石 〃一一・〇〇〇

(8型) イ 七石 只の七・〇〇〇 ロ 七石 〃八・二〇〇 ハ 十五石 〃九・八〇〇 ニ 十五石 〃一四・〇〇〇

クロム側懷中 鎖メタル付

(16型) イ 七石 只の二・六〇〇 ロ 七石 〃三・二〇〇 ハ 七石 〃四・三〇〇 ニ 十石 〃五・五〇〇 ホ 十石 〃六・八〇〇 ヘ 十五石 〃八・八〇〇 ト 十五石 〃一〇・〇〇〇

クロムウオルサム懷中

(16型) イ 七石 只の七・五〇〇 ロ 七石 〃一一・五〇〇 ハ 七石 〃一一・七〇〇 ニ 七石 〃一七・五〇〇 ホ 十五石 〃一九・八〇〇 ヘ 十五石 〃三二・〇〇〇 ト 十五石 〃三八・〇〇〇

十八金HK側腕卷八型 イ 七石 只の八・六〇〇 ロ 十五石 〃一二・〇〇〇

Ⓢ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〇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후루ー쓰 一等品質

桃屋의果實罐詰

白桃、黃桃 枇杷 西洋梨 후루ー쓰사라다 후루ー쓰폰치 蜜柑 櫻桃 鳳梨

各떼파ー트와食料品店에잇소

東京 桃屋商店 發賣元 京城 辻本商店

軍手의製造

◆年中無休……收入確實◆

●收入確實하고確約한製品을軍手製物製造를獎勵합니다

●北鮮은水가아말로晝夜勞働의確立이업시年中勞力할수잇습니다

●弊所의發明機는操作이平易하야婦人이라도能히當日收入을어들수잇는有利事業입니다

●弊所는軍手의製造業家와의協勞力으로活用하는副業으로普及식히며綿絲의供給製品의引受等을相互連絡을取하며共存共榮의目的을達키爲하야目下各地에製造家를要求하고잇습니다

●就業을希望하시는분은左記弊所로御照會次第說明書를無料進呈하나이다

京城府黃金町五 軍手專門 輸出問屋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⑥〇七一番·振替京城二四三八〇番

京城貫鐵町二二八(鍾閣後)

肋膜病專門 海雲內科醫院

醫師 李圭暐

電話光三二八六番

돈버리에王覇

アイスケーキ는!!

機構完璧、優秀無比斯界의權威

國益冷凍機

鮮內据付臺數第一位

京城府本町四丁目二八 電本局四七〇七番 國益冷凍機會社京城販賣所

大邱府元町一丁目 國益冷凍機會社朝鮮出張所 電話長一一四二番

(申込次第カタログ進呈)

チドリ椿ポマード油

本舖 高木大宝堂 大阪市東区清堀町八 電話南六一五二番

當選謝禮

全羅南道道會議員 崔鎣澔 寶城邑內

當選謝禮

不肖等이今番慶北道會議員選擧에當選되엿삽기紙上으로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徐丙朝 金在煥 徐柄柱 林尙助 秦喜泰

本社主催 広告講座 (九)

新聞廣告에 對하야 廣告의 社會的存在性

日本電報通信社理事 石井衛太

第四講座 ①

나는 只今 紹介받은 日本電通社의石井衛太입니다 實은 우리社의 營業局長 光永眞三氏가 와서 말슴드릴 豫定이엇스나 出發前에 여러가지 故障이생기어 갑자기 내가 代理로 오게 되엇다 그도出發前夜 말이잇서 「明日 곳 떠나 朝鮮日報社에서 廣告에 關한 講演을해라」하므로「그러나 나는 아무 腹案이업고 또 그러한 짧은 時間에 腹案을 생각할수가업스니 困難하다」한즉 『어떠튼 꼭가라』하야 갑자기왓다 그리고 또 廣告에關한 講演을한 經驗이 업스므로 甚히 듯기 시른點이 多少잇스리라고 생각하니 아무조록 미리 諒解하야주기 바란다

新聞과廣告의關係

나는 日常 新聞廣告의 實務에 當하고 잇는關係上 實際的方面에서 新聞과廣告의關係 及 新聞廣告는 어떠한가 하는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생각한다 大體 新聞의社會性 或은 社會的存在에對하야 一般人은 漠然한 認識을 가지고잇다 그들은新聞이 輿論機關이고 報道機關이며 或은 新聞이賣物이라는點에 對하야 漠然한認識을 가지고잇스나 압서 伊藤先生이 말슴한 新聞社收入의 四割以上六割까지가 廣告라는것을 아는분은 적으리라고 생각한다 新聞社의 收入中그四割乃至六割이 廣告收入에 依하야 占領된다는것은 新聞廣告가 社會的存在로 重要한 意義가잇는것을 證明하고잇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어려운말은 伊藤先生이 압서말슴하얏스므로 나는 新聞과廣告의 關係라는것에 對하야 係히大體를 말하야 보려고생각한다

客月初에 全國新聞社와 廣告代理業者、新聞社에 記事를 供給하는 通信社等이 모혀成立된 團體인日本新聞協會의第二十五回의 大會가東京에서開催되엇는바 그席上에서 有名한德富蘇峰先生이 朝野의顯官

名士 財界의 巨頭等數百名아페서 一場의人事를하얏는데그 人事中 新聞이라는것의 經營이 實로 困難한것 또 一面 新聞이 社會文化上에 非常한 貢獻을하고잇는點을 强調하얏는바 그말中 新聞經營上에는 세가지 鬼門이잇는데 그세가지 鬼門이라는것은 무엇인가하면 第一은 무서운사람 第二는 紙業者 第三은 廣告主이다 무엇하야다 即第一의 무서운사람이라는것은 말할것도업시 言論의 監督者이다 第二의紙業者라는것은 말할것도 업시 製紙業者、第三은 廣告主 이三者에 사랑을 밧지안흐면 新聞經營을 到底히 하야갈수업다 그第一의 무서운사람이라는것은 新聞의 編輯方面에 關係가잇는것이고 第二의 紙業者는 말할것도업시 販賣方面、新聞을 파는方面이다 第三의 廣告主는 新聞社의 廣告部의 廣告關係이다 即 新聞이라는것은 編輯과 販賣와 廣告 이세가지의 鼎立上에 서잇는것이다 이세가지가 順調로 協調하야가지안흐면 新聞이라는 것은 潰滅되고말것이다 即蘇峰先生이 그세가지가 新聞의 要素라하는것은 先生一流의比喩로말슴한것이다

新聞社에잇서서 如斯히重大한 役割을하고잇는 廣告方面에서 오는收入이 新聞社의總收入의 約半分을 占하고잇슴은 當然하다고 생각한다 어떠면 新聞社의 例를들면 百萬圓收入이잇다고 하면그中五十萬圓은 廣告部로부터의 收入이고나머지 五十萬圓은 販賣方面에서 오는것이 新聞社의 常道이다 우리는 朝、夕二回 記事밧고그러고이것이어서는견딜수업는 國內外의 重大記事를 新聞을一個月 僅一圓의 廉價로 살수잇다는것도實은 이廣告때문으로 萬若이廣告가 新聞에 一行도업다면 只今 廣告에 充當하고 잇는 「스페이스」를 非常히빗싼記事로 채우지안흐면안되게된다 그러케되면 우리가읽는 新聞은 只今價格의三倍 또는 伊藤先生의 말슴에依하면 米國의말이나 아마 七倍가량으로 되리라고말하는 사람도 잇다 그리하야 그만한 購讀料를 내지안흐면 안되게된다 即 新聞廣告라는것은 單只 商品을 宣傳할뿐만아니라 이 社會에 依하야 社會의 公共機關의 存續에 必要한 糧食을 與하는同時에 一面國民의 生活에 必要한新聞의 購讀料를 싸게하야 國民의 生活費의 負擔을 輕하게하는것이다 (續)

(寫眞은 石井衛太氏)

産業

荒蕪地를開墾 棉花栽培를奬勵

一年에二十二町步를標準으로 慶北道서五個年計畫

【大邱】棉花의 增殖을 圖하기爲하야 慶北道當局에서는 五個年計劃으로서 道內荒蕪地와 林間擴地帶를 開墾하야棉作의 栽培를 積極的으로 奬勵할 方針이라는데 右計劃案은 一年에二十二町步標準으로 五個年間百十町步를栽培한다는것이다

江原道林協主催 木炭講習會開催

【伊川】江原道伊川郡은 地理上 田地面積보다 林野面積이 만흠으로 모든産業의 開拓은 반드시山林을利用케되는바 元來 本郡은山林이만허 木材、藥草、木炭等의 林産物이 豐富한데 그中에 伊川産木炭은 近年에至하야 包裝改良、製炭法의改善等으로 京城燃料組合에서 伊川産木炭은朝鮮的으로 有名하다고하게되어今般江原道山林協會主催로 伊川郡鶴鳳面鶴洞里에서 六月二日부터 十六日까지 十五日間 製炭講習會를 開催하고 製炭方法에對한 硏究와 實地指導講習을하기로되엇는데 今後 伊川産木炭은 全朝鮮木炭市場에 進出하야 遜色이업슬것이며 講師는池尾技手 金昌烈技手 金甚福技手이라고한다

麥酒原料栽培 前途頗有望

今後二千町步栽培를目標로 濟州島서大增産計畫

【光州】濟州島에는 麥酒原料인 大麥의 成績이 良好하다고 再昨年부터 그에對한 專門家들間에 論議가되어오든바 昨年七月에 日本麥酒會社社長 一行이濟州島麥作視察後 普通麥價보다三割假量의高價로 特約買收하기로 되어잇는데 現在에는 一段步當 一石四斗收穫豫想으로 耕作面積은 百二十町步이나 今後二千町步目標로 大擴張할方針이라하며 除虫菊은 昨年風水害로 因하야 耕作面積은 增加되지안헛스나今年度成績은 매우良好하며 그面積은 六百町步로서 休閑地帶利用作物로는 今後더욱 有望視된다한다

木炭未檢查品 徹底히取締

平南道서檢查員動員

【平壤】平安南道 山林課에서는 木炭檢查員十名을 動員하야 二日부터 平壤府內의 木炭商店을 訪問하고 木炭檢查를 實施中인데 無檢查品이 相當히 多數임으로 道當局에서는 徹底한 取締를 하기로되엇다

平南道內의 木炭의 生産數量은 百十萬貫에 達하나 消費數量은 百五十萬貫이어서 四十萬貫은 他道에서 移入하는 狀態일뿐아니라 品質 形態 重量 俵裝等도 規格에 一定한 基準이업기때문에 取引의圓滑을 期키어려워 生産者의 不利가 퍽컷섯슴으로 道에서는 生産地에對하야 生産組合을 組織하고 이에對한 資材購入金의 融通 改良窯의助成 其他 山林會支部에서 販賣斡旋을하는等 施設의改善과 販路의擴張에 努力하는外에 昨年부터는 山林會支部에서 木炭檢查制를實施하야 今日에미치엇는데 勿論木炭檢查規則과施行手續까지 發表하얏스므로 반다시檢查를바더야할것이나 生産者나取引者는檢查받는것이 不快하야 無檢查대로賣買하고잇는것이만허 嚴重한取締를하기로된것이다

朝鮮小野田세멘트 三十五%繰短實施

【淸津】過般朝鮮에도 實施를보게된 重要産業統制法이 朝鮮서는 처음으로 咸北古茂山의 朝鮮小野田세멘트工場에 發動하얏다 咸北道産業課에서는 去月二十九日課員을 同工場에 派遣하야 古茂山外에 川內里勝湖里에 各工場을 가지엇는데 古茂山의 工場生産力十五萬噸 川內里工場의 四十二萬噸 勝湖里工場의三十一萬噸인바 全體를合算하야三十五%의 繰短實施를 實現하는것이라는데(日本內地는五〇%)古茂山工場은 咸北의 세멘트需要가 彪大함에 鑑하야 他工場보다는"세멘트이지"가減少될것으로 보인다한다

忠北道서自給肥 改良增殖을徹底

【淸州】忠北道當局에서는 農家更生에잇서서 重要한 種目으로되어잇는 自給肥料改良增殖에잇서서 製造管理의方法等에關하야서는그 計畫을 樹立하야 堆肥의增産과 奬勵計畫에依하야 着着그成果를 보이고잇는現狀인바 이實績을보건대 尙今同事業에不徹底한 點이만흐므로 農民의 肥料知識增及 奬勵計畫完成의 具體的計畫을 樹立하고 統制잇는 指導를 行하야서 改善의 徹底를 期토록 各郡에 嚴命하는同時 大略 如左한事項을 指示하얏다고한다

一、堆肥場의修築
一、指導奬勵의 責任區域決定
一、督勵機關의連絡
一、堆肥場의 位置構造
一、調查報告

公共團體의 起債도困難

地方財政의 膨脹에伴하야 今年度의 地方公共團體의 起債는 前年度의 二千萬圓가량에서 一躍倍額以上의 四千萬圓을 豫想하게되엇는데 이起債는 때마츰 金融市場의 情勢에影響되어 豫想以上으로 澁滯하야 그推移가 자못注目된다

就中 大口의것은 京城府等으로 府關係만으로 今年度 八百萬圓에達하는데 殖銀等의 引受力은 金融難으로 極度로 制限되고잇는 貌樣이다 그러나 이方面의 融通은 金融機關方面에서 犧牲的으로 起債가 困難하면 借入金으로 事業遂行에 支障이업게할方針이므로 行政上에는 支障이 生치안흘貌樣이나公共團體의起債難의傾向은重視된다

◆産◆業◆短◆信◆

▲襄陽 江原道襄陽金融組合에서는 全朝鮮的으로 擧行하는 創立三十周年記念을 擧行하엿는데 指導委員及 模範組合員表彰이잇섯다

▲昌寧 昌寧郡衾谷面飛里 飛孔識栄採種組合에서는 지난 一日午前十一時부터 組合事務所內에서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하얏다

▲光州 湖南線松汀里에잇는 長岡薄荷工場은 去一日에 多數官民을 招待하야 盛大히 工場新築落成式을 擧行하얏는데 同薄荷工場은 全日本的의 大工場으로서 年産額二百萬圓에 達하고잇다한다

日用商品市況

▲綿布弱含 米綿二五錢高 印棉三〇錢高로 材料小堅에 三品各限二三圓高 市中現物界는販賣閑散 地低로 人氣不振 勢는弱含이나不變

▲海藻高騰 【木浦】木浦의 海藻出廻는 바야흐로 本格的으로 旺盛하야 가고잇는바 價格은 甫布百斤當六十圓臺를 突破하야 例年의倍以上이란 超記錄的時勢를 出現하고 其他天草櫻草 花布等도 모다 去年倍以上의 高價이고 氣候의 順調로 因하야 附殖도 良好하야 實로 無盡藏의 現象을 나타내고잇스며 落札된大部分은 日本內地의 機織地에 移出되어 五月中만해도 벌서 甫布三萬二千八百斤價格一萬八千四百七十圓이 移出되엇다한다

【莞島】全羅南道漁業組合聯合會莞島出張所에서는 去五月二十四日부터 海藻類에對한 競賣入札을始作하야 今月四日까지에 第五回集合販賣를하얏다는데 그時價는 아래와갓고 今年의生産豫想高는 四十萬斤에達할모양이다

甫布	最高	五九、六〇錢
同	最低	五七、八〇
天草	最高	五七、六〇
同	最低	三八、五〇
銀杏草	最高	二八、二〇
同	最低	二五、六〇
櫻草	最高	三一、三〇
同	最低	一四、七〇

▲漢藥 七日京城市內의漢藥市況을보면 大體다음과갓다

▲草材不變 草材는當局의採取取締로 例年比하면 出廻가減少되야 前途樂觀을 不許하는터이나 現在의時勢는 前週와不變이다

▲唐材堅調 唐材는 爲替關係로 堅調를示하야 入荷의減少를 보고잇다

▲茸材底堅 鹿茸은今初夏의捕獲이 적어서 底强을示하고잇다

開城人參(一斤)	一等	二等
三〇片	一一、三〇	九、五〇
四〇片	一〇、八〇	九、四〇
五〇片	一〇、一〇	八、五〇
四〇片(以下單位斤)	品切	
天麻 一、五〇	赤箭 品切	
白朮 、二五	蒼朮 、一〇	
狗脊 、二五	巴戟天 、七〇	

品名	價	品名	價
遠志	、五〇	威靈仙	、三〇
玄參	、二五	地楡	、一五
丹參	、三八	紫草	、四〇
白芨	、六〇	黃連	、六〇
胡黃連	、八〇	黃芩	、四〇
桑白皮	、二五	柴胡	、四〇
前胡	、二五	防風	、二五
光活	、三八	獨活	、二五
升麻	、二五	苦參	、〇八
白鮮皮	、一八	延胡	、二五
貝母	、六五	龍膽	、三八
細辛	、二五	川芎(土)	、一七
白芷(唐)	、三〇	白朮	、一七
良薑	、二五	白豆蔻	一、八〇
砂仁	、八〇	益智仁	、三六
肉豆久	、七〇	破古紙	、二八
鬱金	、三〇	莪朮	、二五
香附	、二五	藿香	、四〇
澤蘭	、三〇	香薷	、二五
荊芥	、三〇	薄荷	、二五
紫蘇葉	、四〇	蘇子	、二五
茵蔯	、二五	益母草	、二五
胡芦巴	、四〇	蒼耳子	、一八
麻黃	、三〇	木賊	、二五
燈心	一、三〇	生地黃	、一八
牛膝	、五〇	白葵花	、四〇
決明子	、一八	車前子	、二五
連翹	、二五	萹蓄	、二五
大黃	、二五	附子	二、三〇
大戟	、二八	白附子	、二五
南星	、三〇	半夏	、六〇
法兎絲子	、三八	沙參	、三五
白片豆	、二五	五味子	、三五
使君子	一、三〇	瓜蔞仁	、五〇
天花粉	、三〇	葛根	、〇八
天門冬	、七五	白何首烏	、四五
通草	、一五	木通	、一五
桔梗	、四〇	黃芪	、七〇
知母	、一四	黃精	、二五
忍冬	、二五	金銀花	、三五
桂皮	、一〇	肉桂	、五〇
辛夷	、八〇	桂枝	、一五
丁香	一、〇〇	沈香	中貳三、四〇〇
烏藥	、二五	吳茱萸	、八
龍腦桶八	三、三〇	大腹皮	、一〇
黃梔	、一〇	沒藥	、三五
杜冲	、五〇	厚朴	、一六
枳實	、二八	巴豆	、三五
梔子	、一八	山茱萸	新一、三〇
金櫻子	、一八	郁李仁	、九〇
五加皮	、一五	枸杞子	一、〇〇
牧丹(大)	一、五〇	醬豆	品切
琥珀屑	、九〇	楮茶	、七五
竹葉	、一六	白芥子	、二五
竹茹	、三五	鬱砂	、五〇
乾薑(土)	、二五	覆盆子	、二五
龍眼肉	、三〇	蓮肉	、二五
神曲	、二五	麥芽	、一五
五倍子	、二五	鼈板	、一四
鹿角膠	、四五	朱砂	六、五〇
石膏	、一〇	滑石	、一〇
硫黃	、一〇	白礬	、一三
澤瀉唐	、二〇	土澤	、二〇
甘草(東)	、三〇	中甘	、二五

白伏苓 去皮 自一、五〇至二、〇〇以上
上白伏神 自五〇錢以上至三圓以上
蓯蓉 生一斤 一、〇〇 法一斤 一、〇〇
春皮當歸 古秋製 一斤 一、六〇
熟地 封品 二、五〇 特品 二、四〇
枳殼 一號 、三〇 二號 、二〇
鹿茸 一兩 自一、五〇至二〇圓以上
熊膽 一分 一、三〇
麝香 同 一、三〇
竹瀝 小瓶 、三〇
檳榔 上一斤、三五 中一斤、二五

【天一藥房調查】

▲麥作付段別及收穫高累年表

年	作付段別(町)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收穫高(石)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昭和七年	八六八、五五八	三三三、七九四	九九、三九五	—	一、三〇一、七四七	八、〇〇三、八六三	一、七七八、三六九	八六七、一三三	—	一〇、六四九、三六五
同八年	八八八、八〇八	三三二、三六八	一三四、五〇八	—	一、三五五、六八四	七、七五五、三〇四	一、七〇三、五六七	一、〇二〇、一五五	—	一〇、五三〇、七〇四
同九年	八八七、九三九	三三五、六三〇	一四〇、三七〇	—	一、三六三、九三九	七、九九〇、九六九	一、八三七、七八一	一、三六五、一九二	—	一一、一九四、九四二
同十年	八六〇、八四一	三三〇、三〇四	一三三、七四〇	—	一、三二四、八八五	八、七五一、九六三	一、九二三、八〇七	一、六三六、五三六	—	一二、三一二、三〇六
同十一年	八六二、五五九	三三三、五〇一	一三五、六四七	一五、四五〇	一、四〇五、九八九	六、八二一、六六六	一、六〇五、二二五	一、九六二、七六八	二〇、二二五	一〇、四〇四、九八二
同十二年(豫想)	八六六、八八一、七	三四一、四三九、一	二三七、八四二、七	二、七四〇、八	一、四四九、九一四、三	九、〇〇八、四六六	二、一八九、三三〇	二、七八三、三三七	七七、六一九	一四、〇〇四、七七八
昭和十一年實收에對한同十二年豫想增減(△)	△四、四四七、二	八、七九〇、七	一〇、〇二一、三	一一、九〇〇、八	四三、九二九、六	二、一八六、八〇〇	五八四、一〇五	八二〇、五六九	五七、三九四	三、五九九、八六八
同上率	△〇、〇五割	〇、二三割	〇、四三割	〇、七七割	〇、三一割	三、二割	三、六四割	四、一八割	三、六三割	三、五一割

▲今年麥作付段別及收穫豫想高

道別	作付段別(町)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收穫高(石)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京畿	九四、七〇七、九	三六、三九六	九四六、四	一、五八九、五	一三三、七三三、四	一、〇二三、八〇〇	一五一、六六三	七、六〇五	八、〇〇二	一、一八〇、〇七九
忠北	七〇、八三六、二	一五、八九七、〇	三、三三〇	三六四、七	八〇、三一九、九	七二一、〇五三	一三四、三四七	一、五二一	一、七五五	八三八、六六五
忠南	七八、三三七、九	一〇、三二一、九	七、五四三、七	八六八、四	九七、一二〇、九	九八一、三九八	八九、九九三	六九、五二七	四、四八四	一、一四五、三三二
全北	三三、一四、七	一五、六五三、三	五六、六三二、五	三三九、二	一八九、九八〇、一	三九八、一五五	四四、二三三	六四三、一三〇	一、三九一	一、〇八五、七七九
全南	五一、四八一、三	九、八〇七、五	三六、六二一、三	—	二五〇、四四四、二	七二一、六四九	八七、七七九	一、六四九、九一七	—	二、四四九、三四五
慶北	二〇六、七二一、六	三一、八九〇、三	二八、三三三	—	一八二、三三〇、〇	二、三二八、九〇七	一九九、九六八	五五五、〇七三	—	二、四四七、九四八
慶南	一四七、〇五九、〇	一一、五五四、〇	二三、三三〇	五四五、〇	一四七、九四四、三	一、六八四、四二五	九九、三八〇	三三五、九九三	二二、五六九	二、一〇二、三二七
黃海	一〇〇、〇四九、三	一三三、四四六、七	一、七五三、四	六四九、九	七一、三二五、六	八四〇、二〇三	八一四、六一四	一一〇、八五	二一、一七六	九二一、〇〇七
平南	一八六、九二一、四	四七、九六一、六	四、二〇〇、五	二五三、一	六〇、七八三、三	一、六五〇、二〇四	三五六、四九七	三六〇、〇八三	一、〇二三	五〇七、六二六
平北	五、四〇四、二	四、一三一、一	—	二四三、〇	九六、九四七、三	四三二、九九四	二三、三三八	—	一、一二五	四六八、五五三
江原	四八、三三九、六	三九、九五一、七	七五二、六	七九三、四	一五〇、八〇七、九	四三一、六八〇	三三二、四三三	四、四〇一	五〇、七九六	七〇九、三〇〇
咸南	四三、六七二、九	七、〇四二、四	六〇	八六、六	四八、一〇〇、七	二九五、八一四	三七、一〇一	二七	三〇三	三三三、二二三
咸北	四八、一二〇、七	一、九〇	一、〇	—	[illegible]	二七〇、四三九	九五	五	—	二七〇、五三九
計	八六六、八八一、七	三四一、四三九、一	二三七、八四二、七	二、七四〇、八	一、四四九、九一四、三	九、〇〇八、四六六	二、一八九、三三〇	二、七八三、三三七	七七、六一九	一四、〇〇四、七七八
同上率	△〇、〇五割	〇、三二割	四、一八割	三、六三割	〇、三一割					

‶쥬력″의顚覆으로 三十餘農民死傷

一名死亡、三十四名重輕傷

東陵附近서생긴慘事

【奉天】 지난오일오전 열한시경에 봉천시외동릉(東陵)전방약이천미의 지점에서 동포농민삼십오명을태운 『히노데』쥬력(『의무면허운전수 평남출생 채수천(蔡洙銓)(三二)이가 운전하던 쥬력이 전복되여 다수의중경상자를 내인처참한사고가 발생되엿다 급보를접한 소관경찰서에서는 현장에급행하야 상세히검증한후운전수를 서에인치하고 취조하는 일방 부상자들은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 수용하고 응급치료를하는중이나 일명은 드듸여절명하고 말엇다하며 부상자는 아래와갓다 한다

▲絶命者 張炳浩(四○)本籍 慶南密陽郡丹陽面

▲重態者 李雲燦(四○)本籍=平北平原郡西海面 鄭斗煥(三○)本籍=慶北迎日郡迎日面 金昌浩(二六)本籍=平南江西郡東津面

▲重傷者 李官斗(二九)本籍=平北龍川郡北中面 李根秀(四七)本籍=黃海道厚山郡馬山面 任芝玉(三○)本籍=平北龍川郡楊下面 金炳日(三○)本籍=黃海道鳳山郡西仁面 金世坤(三○)本籍=平北鐵山郡鐵山面 康德奉(三○)本籍=平南平原郡橫山面 白尙浩(三七)本籍=平北楚山郡南面 金元吉(三○)本籍=平北宣川郡水淸面

▲以下二十六名輕傷者

慘禍의原因은

合作社堤防不完全과 無免許運轉手의運轉

既報=보도한『쥬럭』전복사건에대하야 자세한것을 조사한바에의하면 봉천부근농촌의수전경작은 그전부가 혼하(渾河)강물을리용하여 작농하는데 본래 봉천강덕수리합작사(奉天康德水利合作社)라는것이잇서서 농가일호일일경(一日耕)에 오원내지팔원식을 수로개척(水路開拓)제방수조(堤防修造)등비용으로 해마다 증수하고 제방을축조또는 수조해오던터인데 제방축조(堤防築造)등의전으로 배해농경기를당할때마다 농민들의 큰고통으로서 금번에도 일수가고르지못한관계로 전인들을녀허보지못한수전이 적지안타고한다 그리하야 농민들은 수리합작사당국에다가 하로속히 제방수조해주기를 청탁한바 수리합작사에서는 장곡천조(長谷川組)라는 청부업자에게 맛기여 수조케하엿스나 공사가 빨리진행되지안흠으로 일자는느저지고 파종은 할수가업슴으로 수리합작사만맛고잇다가는 금년농사가불가능함으로 수리합작사와교섭하고 자발적으로 공사에 종사키로하야 농가매호에 장정일인식나오기로하엿다한다 그런데 혼하제방지와농가와는 거리가먼관계로 수리합작사에서「쥬럭」을제공하엿다는데 심양현재이구오가황(吳家荒)을 비롯하야 북릉(北陵)등 후칠곳에서 삼백명이위선나오기로하고 지난오일아츰「쥬럭」열대에 각각분승하야 제방지인동릉쪽으로 달리던중 전기채수현이라는 무면허운전수가 운전하면서 압선차를 추종키위하야 전속력을내여운전하는도중 도로를 횡단하는양떼를 피하라다가 그와가티 참화를당하게된 것이라한다

鐵原道路工事에 市民非難漸高

【鐵原】 지난이월부터 시작된철원간선도로 수축공사는 청부게순서로보아 사오게단을 지나온관계로일것공사의완전을기하게되엿을뿐아니라 공사진행이자못 늣게되여도로양측에잇는 상점과 집압폐공사용돌때미로 말미암아 사오개월식 무수한곤난을당하고 잇는중인바 압호로도 그공사가언제나 진행될지모르는 철원시민들은 참다못하야 대분개하얏스며 며날동안 청부자측의 태도를보아 시민들은 이의대책을강구하리라는바 청부업자측에서는 지금이농번기라 임금관계도잇거니와 더구나인부를 어들수가업슴으로 공사는중지상태에잇게되니 압호로 철원시민들의 분개는공사촉진에만그칠것이 아니라 공사불완전문제에까지 밋치기쉬우리라하야 일대문제중이라한다

陽市體育會定總

【陽市】 평북룡천군 양시체육회(陽市體育會)에서는 지난일일하오팔시에 당지일성여관(日盛旅館)이층에서 제사회 정기총회를개최하고 작년도수지결산보고와 임원개선이잇슨후 금년도 례년과가티 단오놀이용하야 각종회와추천대회를 개최키로하고 이날밤오전두시에야 산회하엿다는바 개선된 임원은 아래와갓다 한다

任員 會長金寶根 副會長金榮元 總務林用彬 會計王宗鎭 洪淳玉 書記金昌德 金寶根 關戲部長 劉仁穆 競技部長 金承哲 理事文致善 金錫用 李炳寶 金禮順 鄭敬京 監査白亨珍 李益善 金敦領 顧問白繁柱 鄭瑞鳳 白學俊

安州平野에도 旱魃深刻

【新安州】 평남안주평야(安州平野)에는 오랫동안 계속하는한발로 모판은 비스맛을보지못하여 귀렬상태에 달하엿스며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모판에서 해충이 번식하여 모든 전부고사되여부득불 재차종자를 길러뿌림에 꼿꼿이 분망중이다 더욱이 룡화면(龍化面)과 연호(燕湖)지방은 지난사월십삼일 해일(海溢)관계로 더욱극심하다하며 농민으로(苗)사드리기에 고심중이다 금년도 흉년예상으로 자못농촌인심이 물란하다고한다

‶불″豫防하랴다 집한채를全燒코

放火罪로警察署身勢까지 無知가나흔넌센스

【新義州】 정주군 도산면옥야동(定州郡島山面玉野洞)리근석(李根碩)방으로부터 지난 사월사일 불이이러나 동가를전소하얏는데 정주서에서 발화원인에대하야 괴상한점이잇슴으로 그간내사를한바 동인의처리화실(李離實)(三七)이가 박천군서면에 거주한다는 무당 리모(李某)로부터 자기집에서 치는도야지를잡아 신(神)에게 기도를하지안으면 집에화가잇겟다는 어리석은말을밋고 남편에게여러번 기도를드리자고권하얏스나 종시 듯지안코 도야지를 팔어버렷슴으로 무지한여자의마음으로 도야지우리(豚小屋)나마 태우라고 불을노은것이 집에까지연소되것이다 정주서에서는 방금전기리화실을 검거하야 방화죄로 취조중이라한다

平壤

第七回 全朝鮮씨름大會

▲日時 六月十七、八兩日每下午八時半

▲場所 平壤府內崇實體育館

▲競技 一般個人戰、中等學生個人戰

▲申請期 六月十五日까지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城川江築堤問題로 左岸住民들不平

右岸만築堤하면威脅倍加라고 七十餘名이道에陳情

【咸興】 함남주북면운흥리(咸州郡州北面雲興里)대표김량홍(金良洪)등칠십일명은 련서로함남도지사에게 대하야성천강(城川江)의 축제(築堤)를주북면(州北面)측에도 기어히시행하야 달라고진정하야왓다 그리유를 들으면주북면운흥리(雲興里)는성천강의좌안(左岸)에잇서서 매년수해의참해를 밧는곳인데 이번중소하천개수계획에든 성천강의 개수는 우안(右岸)이상기천면상리(上岐川面上里)로부터 황문교(黃門橋)까지의사이를 개수하기만하고좌안은 일체개수하지안는다고 하니 좌안인주북면 운흥리는강수심이좌안(左岸)으로 변하여지며도한하폭(河幅)이매우 좁아지는관계로 전보담도 몃배나 수해의 유는들 더당하게될것이다 현재운흥리(雲興里)에잇는 오륙십호의인가와 십여간평의 사활을위하야 맛당히좌안(左岸)에도축제하야달라는것이다

廣梁灣體育會創立

【廣梁灣】 평남광량만(廣梁灣)에는아직까지 이러타할기관이업서 일반이 유감으로 생각하든바당지로회진(魯會鎭)표기범(表在範)김창룡(金昌龍)제씨의 발기로지난 오월이십륙일오후구시부터그곳 금곡면(金谷面)사무소회의실에 청년 삼십여명이 회합하야 로회진(魯會鎭)씨사회하에 체육회창립총회를 개최하엿는데 토의사항과 부서는다음과갓다

討議事項 本會維持方針의件

宿案의新昌築港— 明年中에는着工

海陸兩方의大防波堤築造

【咸興】 수산으로 무역으로 약진과정을 것고잇는 함남 북부의 각항구(港)의 수축은 목하의 급무로되여잇는바 이어항가운데에서도 가장급하다고하는 신창(新昌)항에대하야서는 위선명년도부터 공비사십오만원을 드려서 착공하려고 목하도로목과에서 래년도예산에 계상하려연구하는중이다 이항구는 수년전에 십수만원을드려저서 한번개수한일이잇스나 조류(潮流)관계상해면이야게(淺)되엿슴으로 전혀선박의 출입을할수업는 상태라고하는데 이번으로는륙상(陸上)으로부터 약이백오십메돌의 도해상(海上)으로서 오백메돌의방파제(防波堤)를 설치하려고계획하고잇다

平原郡內에도 選擧違反摘發

【平壤】 지난달십일에 시행되도회의원선거는 상당히격선이전개되엿섯든만큼 선거위반은 안주(安州)양덕(陽德)중화(中和)방면에서 적발되여경찰당국에서는긴장해잇는터인데 이번에는 평원군(平原郡)에서 위반사실이 발되여 경찰당국은 활동을개시하여 유권자두명、보통면민두명을검거해다가 취조중으로 아마무계출운동원의활동과 매수협의인듯하다고한다

子息위한妾살림 結局은死로淸算(未遂)

아들은‶우물″에어머니는‶철도″로 눈물겨운그女子末路

【新義州】 아버지업는자식을 살리기위하야 가진일을 다하여보앗스나 약한여자의 몸으로서는 생활을 지당해나갈수가업슴으로 ‶첩″이라는 더러운일홈을 쓰며 재출가를 하얏스나 자기가 다리고 들어간 자식으로말미아마 집안에 풍파가끈허질사이가 업슴으로 비참한결심끗헤 자기‶아들″을 죽인후 자기도 철도자살을 하려다가 목적을이루지못하고 병원‶뻬드″우에서 아들의 일홈을 부르며 신음하고잇는 당년 이십세의 꼿다운 ‶녀자의일생″—비극의주인공은 평북영변군북신현면 하향동(寧邊郡北新峴面下香洞) 리모(李某)의 첩류숙자(劉淑子)(二○)로 자기가다리고온 전남편과 사이에 나흔아들 장대식(張大湜)(三)을 지난이일 새벽부근에잇는 ‶우물″속에 던저죽게한다음 자기마저 자살을하려고 평북만포선 묘향산(妙香山)과 북신현역사이철도엽헤가서 기차오기를 기대리다가 삼일오전여섯시쯤마침그곳을통과하는 렬차에뛰어들어 빈사의중상을입고쓰러진것을 곳개천(价川)철도의무실에 운반하여다가 응급수당을가하엿스나 다시살아날히망이업다고한다

鎭興公普增級 猛活動을開始

【鎭興】 함남정평군 진흥공립보통학교학급증설을 달성코자 동학구역민들의 결성이 지극하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달이십구일에는 해교학급증설기성위원과 학부형회위원들이 합동위원회를개최하고 학급증설촉성비일만오천원 조달방법을 토의한결과 광위원을 합하야 별동대를조직하야 금추기까지에는 어떠한사정을 물구하고 길만오천원을 완달할결심으로 현재 위원선부는 맹활동을 계속하고잇다고한다

第十五回中等校庭球聯盟戰

來十二日부터東星商業코—트 本社寄贈優勝旗는어느陣頭에

우리中等學校庭球界에잇서서 가장오랜歷史를가진 京城私立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十五回 中等校庭球聯盟戰은來十二日、十四日、十五日의三日間(午後四時)惠化町 東星商業코—트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데 參加校는 今年度의 當番校養正高普를비롯하야 徽文高普、中央高普、普成高普、中東學校、徽新學校、東星商業等으로 各校代表들은緊張과興奮에싸여 猛練習을거듭하고잇는데 이날의優勝校에게는 本社에서 優勝旗와 메달들을 贈呈하기로되엿다

國際올림픽委員會 七日부터開催

【월쇼—六日發同盟】 國際올림픽委員會는 七日午前九時부터 開會될 實行委員會會議를 始初로 無名戰士墓에 吊意를表하고 午餐會가잇슨後 繼續하야 同午後五時부터 總會가열리어 八日부터 十一日까지 繼續開催할터인데 七日의實行委員會에서 問題視되는것은『아마츄어』問題에關한『스키—』競技의 問題이다 이에對하야는 副島伯이 到着即時로 이問題를 日本에 有利하도록活動을 開始하고잇다 冬季競技의日本開催에는 依然北歐와小國間에 反對가擡頭하야 本總會에 欠席한加奈陀도 亦是書面으로서 相當히强硬意見을 提出한模樣이다 一方國際스키—聯盟은 今般總會를特히 重要視하야 會長S·平골드氏는 副會長인 伊太利IOC의『뽀나곳사』伯과 同行 六日『월쇼—』에 到着하야 IOC側과折衝을 開始하기로되엿다 이結果今年度總會에서는 最後的決定을보지못할것으로 觀測되든『스키—』問題도 意外로 速히 解決될모양이다

‶″‶″ 聖火릴레—

【월쇼—六日發同盟】 올림픽伯林大會에서 各國에게가장조흔印象을준·聖火릴레—는 東京大會에 잇서서는 距離問題로 中止키로 되엇는데 이聖火릴레—의 擧行을熱望하야 日本組織委員會까지 其案을 提示하고잇는 希臘IOC委員『호라낫지』氏等은 이希望을 버리지안코 이번總會에도 이것을提示하고 올림픽發祥地인『아젠스』와 大會開催地를 連結하야 올림픽 精神의高揚을 期한다고 聲明하야注目을끌고잇다 同氏의 提案에依하면 聖火는 南方코—스를取하야 『올림피아』로부터 東京까지 一萬九千二百八十六키로인데 이사이에는 海路가 一萬七千八百七十六키로 陸路千四百十키로인바 海路에는 日本軍艦을 出動케하야 聖火릴레—를한다는것이다

早大排球二勝二敗

朝鮮排球協會招聘에 依한 早大排球團來征 第二日=鐵道와 遞信第二回戰은 六日午後二時半부터 鐵道코—트에서 擧行한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早大는鐵道에게 再敗하엿고 遞信을連勝하야 結局二勝二敗하엿다

鐵道 2 (21 21 18 / 14 15 21) 1 早大

早大 2 (21 31 / 13 14) 0 遞信

(寫眞은學生陸上에優勝한普成)

中等庭球리—그 善隣優勝

次位는第二高普

京城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의 第十七回春季리—그戰은 五日(午後四時) 六日(午前八時) 兩日間 元町善隣商業學校코—트에서 養正、二高、一高、善隣、道商、龍中、京商等의 七個校가 參加한가운데 열린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善隣軍과 第二高普軍이 百四點으로 同點이나 兩軍對戰에 一六對一五로 善隣軍이 이겨優勝하엿다

◆總得點=1善隣 百四點、2二高 百四點、3道商 八五點、4龍中 八二點、5一高 八二點、6養正 六二點、7京商四七點

學生庭球聯盟主催 專門리그 第二日戰績

第一部 (京運코—트)

【醫專】13 5【法專】

○(宋偶沐 山口)4…0(貝田 潮良)×
○(恒吉 小田)4…1(吳川 講田)×
○(北原 孫泳洙)4…0(辛昌碩 姜大鳳)×
○(曾我 杉)4…0(李輔虎 洪性澤)×
×(竹中 江戶)1…4(李容國 全德烈)○

【藥專】14 11【醫專】

○(諸岡巖 李翰海)4…1(宋偶沐 山口)×
×(李炳夏 金子龍○)0…4(曾我 杉)○
○(金泓鐸 林承然)4…2(恒吉 小田)×
×(李東熾 姜顯宗)2…4(孫泳洙 北原)○

【法專】16 7【佛專】

○(李明南 金石萬)4…0(李敬洙 安藤)×
○(貝田 潮良)4…2(徐在均 金魚水)×
○(李輔虎 洪性澤)4…0(吳明淳 裵成敦)×
○(辛昌碩 姜大鳳)4…1(中磯 嚴中燮)×
○(李容國 全德烈)4…0(朴藤 井塙)×
×(吳川 講田)0…4(李在淳 黃秉坤)○

第二部 (樂園코—트)

【醫專】17 10【高工】

×(金準培 桂元瑾)3…4(李秉雄 田原)○
○(飛永 洪哉麟)4…1(孫澤 愼武城)×
○(盧鍾奎 朴三烈)4…1(西村 魚村)×
×(吳在仁 吳奈熙)2…4(朴吉洙 宮尾)○
○(金文應 蔣)4…0(久行 保列)×

【高商】15 14【醫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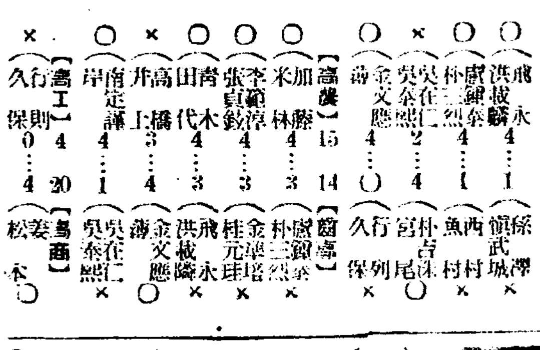
○(加藤 米林)4…3(盧鍾奎 朴三烈)×
○(李範淳 張貞鉉)4…3(金準培 桂元瑾)×
○(靑木 田代)4…3(飛永 洪哉麟)×
×(高橋 井上)3…4(金文應 蔣)○
○(南定謹 岸)4…1(吳在仁 吳奈熙)×
×(久行 保則)0…4(姜 松本)○

【高工】4 20【高商】

×(朴吉洙 宮尾)0…4(張日圖 安井)○
×(西村 奧村)1…4(柳高 高宇)○
×(孫澤 愼武城)0…4(中井 江崎)○
×(李秉雄 田原)3…4(丸木 水木)○

【高商】20 4【高工】

○(李範淳 張貞鉉)4…1(西村 奧村)×
○(加藤 米林)4…0(孫澤 愼武城)×
○(靑木 田代)4…3(李秉雄 田原)×
○(高橋 井上)4…0(久行 保則)×
○(岸 南定謹)4…0(朴吉洙 宮尾)×



(寫眞은專門庭球에優勝한普專)

卅萬圓의怪腕 十八歲의投手

‶뻡뽀·페러″는미국‶크리—브랜드·인디안스″팀에屬한 今年十八歲의投手로서 그의怪腕은 米國野球界를 風靡하고잇는 ‶저리—그″를 데 그는方에 ‶하이스쿨″에잇슬적은 ‶크리—브랜드·인디안스″에서 招請하엿는데 그때重한 右腕에十萬弗(日貨約三十萬圓)의 保險을 걸려 球界의 話題가되엿다 그는 씨—즌開幕前 ‶뽀로그라운드″에서 巨人軍과 對戰時强打者를 無色케하야 九個의三振을내이여 觀衆을 驚歎케하엿다

今日의運動

▲籠球=朝鮮籠球協會主催 第七回全朝鮮籠球大會第一日=培材對高麗俱 第一回戰(午後四時) 延專對中東(午後五時) 培材…高麗俱勝者對普專(午後六時)以上第二回戰 京城運動場『코—트』(觀覽料=普通二十錢 學生十錢) ◇籠協朝鮮支部主催 春季中等校籠球리—그 一高對徽新(午後四時半) 東星對善隣(午後五時半)(觀覽無料)

▲運動會=培材高普創立五十二週年記念陸上運動會 午前八時半同校庭

長篇小說

어머니 【57】

李箕永 作 鄭玄雄 畵

第二、母性篇 죄와벌 (三)

그이튼날 아침에 인숙은 힘업는 몸을 추실는고 할수업시 출근을 하엿다。

그러나 전에업시 맥이 풀린몸은 아무것도 경황이 업서젓다。말할 근력조차 업서진것갓다。

그는 어린애들에게 유희를가리치는데도 그들이 남의자식갓지가안타。

그들은 모두 어재밤 꿈에 뵈든 월영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숙은 정신을 똑바로 차릴라고 마음을 도실려 보앗다。

그러나 그의 눈압헤는 금시로 월영이의 환영이 떠올른다。

하긴 그가 처음으로 월영이를 발견하고 고민할적에는 이러한 환상적(幻想的)보다도 양심의 가책이 더한층 컷섯다。

그는 예수교를 밋는 신자인만큼 하누님이 두려웟다。자기와가튼 죄인을 하누님이 과연용서 하실것인가?아니다!

자기는 무슨 자격으로 남의자식을 가리치고 잇는가?

그동안에 자기는 은밀한가온데서 하누님에게 기도하기를게을니안햇다。그만큼 그는 죄를자복하고 벌서 용서를 바덧다고도 생각하고 십헛다。

그것은 자기가 이러케 양심의 고통을 밧는것이 무엇보다도 증거가 아니냐고!

그러나 자기는 참으로 언재 하누님에게 용서를 바덧는가? 부단히 기도를 드렷다고 그것이 회개한 표적으로 될수잇슬것인가?

아니다! 만일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누님게 용서를 바덧다면 엇지하야 자기는 이다지도 마음이 괴로울까?날이 갈수록 점점더 양심의 고문(拷問)이 심해짐은 웬일인가?……

그러타고 지금 자기의 비밀을 누구의 압헤서나、고백하기는 무서웟다。

그들은 자기의 진정으로 고백하는 회개를 도리혀 조소하고 미워할것아닌가?그러면 교회에서도 쏫겨나고 자기는 영영사람들에게 까지、죄인의 굴레를쓰고 신용할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자기는、당장 유치원선생이나마 쏫겨나서 먹고살수가 업슬것이다。그리되면 고향에잇는 늙은모친과 어린아들은 어째 될것이냐? 자기네 세식구는 꼼짝업시 굶어 죽고 말것이다。

양심이 괴로우니 머니해도 당장 배곫흔것과는 비교할수업슬것갓다。

아니 양심이란 그것도 결국 이해타산에서 비저나오는 것이아닌가?

인숙은 자기의 이러한 생각을 바리새 교인의 교활함에다 비교하고도 시퍼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과부가되여서 눈치꾸레기로 사러온 인숙이는 세상인심이 바르지못한것과 그것은 더욱 천더구레가에게 심한줄을 깨다를수잇섯다。

그래 그는 예수를 미더왓지마는 맹목적 신자는 아니엿다。차라리 그는 하누님에게 죄를질지연정 사람에게는 속기가실혓고 양심의 고통을 겪글망정압뒤생각업시 실직자(失職者)가되기는 무서웟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까지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살어왓스나 날이 갈수록 허위의생활은 고민을 더하게할뿐! 이제는 더참고잇슬수가업섯다。

더구나 월영이의 생각뿐이 간절하야 이질내야 이질수업는 안타까운심사는 자신으로도 어찌할수업는 일이엿다。

인숙은 유치원을 하루바삐 고만두고 십헛다。

그는 유치원 애들이 모두 월영이의 얼골로 나타나는 환상이 나타나기때문에——그래야만 고통도 덜밧고 또한 하누님한테도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게되는것이라고 생각하엿다。

웨 그러냐하면 첫재는 자기와가튼 죄인이 천진한 어린이들을 가리칠 자격도 업거니와 또한 지금의자기는 죄악을 숨기고살기때문이엿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히려 주저하는 무엇이 업지안헛다。그나마고만둔다면 당장 무엇을해서 세식구의 생명을 살릴것인가? 그럴수록 그의번민은 점점더견딜수업섯다。

인숙은 여러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든 끄테 마친내 유치원을 고만두기로 단연히 결심하엿다。

그는 차라리 직업부인이 되고십헛나。무모한짓을 말나고 그의한편귀에서 소곤거린다。그러나 그의갈길은 그박게 다시업섯다。

인숙은 그길로 선교부인을차저갓다。

그의自叙傳

李光洙著 長篇小說

最新刊

堂堂五百頁大册

定價壹圓六十錢 書留送料二十二錢

◆本社出版部의最低廉價發行◆

朝鮮日報紙上에連載되엿든 春園 李光洙氏 著·長篇小說 그의自叙傳이 今刊行되엿다。이 小說은 作者에게 잇서서 가장 意義잇는 作品인것은 毋論이요 近世 朝鮮의 面貌가 이 小說을 通하야 如實히 나타나잇는 點에서 朝鮮靑年은 누구나 읽어둘 必要가잇는줄안다。

『그』는 果然무엇을 雄辯하고 또한 告白햇는지 자세히들으라。

이책이야말로 春園이아니면 쓰지못할 獨特한 作品이다。

제 말

그의 자서전은 어떤 산사람의 자서전은 아닙니다。더구나 나자신의 자서전은 아닙니다。그러나 뜻은 의미로볼때에는 내자서전이라고 할것입니다 왜 그러고하니 그중에는 내개인적 경험이 많이들어잇기때문입니다。똑바로말하면 이소설에 필요한 한에서 내 개인적경험도 집어넣은것입니다。

이야기군은 결코 제이야기를 아니하는법입니다。다만 이야기에 흥미를떼하기위하야 제 이야기긴체 할뿐입니다。왜그러냐?그것은 제 이야기를 똑바로하랴면 남이 부끄럽게 때문입니다。저자신이 부끄럽기때문입니다。그러나 그의자서전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대개는 실재적 인물의 그림자라고 보셔도좃다고 생각합니다。

李光洙

六月十一日一齊發賣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一番地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口座京城五八七八番)——